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속미인곡> 교수·학습 방안 연구
- 여성 화자의 양상을 중심으로

2015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은 정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속미인곡> 교수·학습 방안 연구
- 여성 화자의 양상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고 순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은 정

김은정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년 월 일

주 심 문학박사 곽진석 (인)

위 원 문학박사 최호석 (인)

위 원 문학박사 고순희 (인)

<목 차>

Abstract ····· iv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7
가. 고전시가에 나타난 여성 화자 연구 ····· 7
나.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연구 ····· 12
3. 연구 방법 및 대상 ····· 15

II.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교육의 실제 ····· 19
1. 『문학』 교과서의 <속미인곡> 수록 현황 ····· 20
2. <속미인곡>의 『문학』 교과서 학습 활동 양상 ····· 25
3. <속미인곡> 학습 활동 양상의 문제점 ····· 33

III.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양상과 작품분석 ····· 37
1. <속미인곡>의 문학적 표상: 지고지순한 여성상 ····· 37
2. <속미인곡>의 문화적 표상: 타자화된 여성상 ····· 43
3. <속미인곡>의 교육 내용: 두 가지 여성 화자 양상에 의한 작품분석 47

IV. 여성 화자 교육을 통한 <속미인곡>의 수업 지도의 실제 ····· 53
1. 여성 화자 교육을 통한 <속미인곡>의 수업 절차 모형 ····· 54
가. 계획 단계 ····· 56
나. 구체화 단계 ····· 59

다. 지도 및 평가 단계 ····· 59
2. 여성 화자 교육을 통한 <속미인곡>의 수업의 실제 ····· 64
가. 1차시 수업 지도안 ····· 64
나. 2차시 수업 지도안 ····· 70

V. 결론 ····· 75

참고문헌 ····· 78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표 목차>

<표-1> 2011 개정 『문학』 교과서의 수록 단원 ····· 20
<표-2> 2011 개정 『문학』 교과서의 대단원 학습 목표 ····· 22
<표-3> 두 여인(갑녀와 을녀)의 대화 구분을 통학 역할 정리 활동 ····· 26
<표-4>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작자의 의도와 효과에 관련된 활동 ····· 27
<표-5> 여성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는 활동 ····· 29
<표-6>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을 잇는 특징과 관련된 활동 ····· 31
<표-7> 2011 개정 문학 교과서 <속미인곡> 학습 활동 양상 ····· 34
<표-8>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 ····· 54
<표-9> <속미인곡>의 학습 목표 ····· 58
<표-10> '여성 화자' 교육을 통한 반응의 심화 절차 ····· 62
<표-11> 1차시 학습 활동지 ····· 68
<표-12> 2차시 학습 활동지 ····· 73

A Study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f <SokmiinKok>

— Focus on the meaning aspect of Female Speakers

Eun Jeoung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okmiinkok> education so far has been taught to learners in an aspect that it deals with 'loyalists' love song for their king'. The importance of the meaning of the female speakers in <Sokmiinkok>, however, has been overlooked. By reviewing the aspect of the female speakers manifesting in <Sokmiinkok>, this paper attempts to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gist of education on the female speakers, which recently is taking place in the academic field of classic poetry.

As a work that involves multiple female speakers, <Sokmiinkok> has been steadily educated to learners in schools with respect to 'the female speakers'. But it focuses on the subject of 'loyalists' love song for their king' and puts emphasis only on a highly noble and pure female image. Although the noble and pure image in <Sokmiinkok> is an aspect of the female speakers that expresses the writer's loyalty to the king and thus its importance should be educated to learners,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aspect of the female speakers required by the writer and the era.

The female speakers in <Sokmiinkok> do not simply function as a tool to express the writer's loyalty effectively but performs a function as a 'cultural

representation' as well. In other words, the female speakers in <Sokmiinkok> can be seen as speakers on which a prisoner's consciousness at the time is projected. The female speakers in <Sokmiinkok> are not female images in the real world but those otherized by the writer, Jeongcheol, who did not actually exist. Therefore, only when the interpretation of the female speakers' meaning go beyond the loyalists' love song for their king and reaches up to the otherized aspect, learners will be able to fully understand the context of classic poetry.

As a part of liberal arts education, education of classic poetry ultimately aims to add up awareness of the question of me and my living so as to achieve the totality of life. The poetic speakers on which the past view is reflected are reorganized by learners in present educational venues. Education of female speakers in <Sokmiinkok> will help learners empathize diachronically and synchronically with the era in which <Sokmiinkok> was written and give them an opportunity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the female speakers in present life.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교육 현장에서 고전시가 문학은 텍스트와 학습자간의 시간적 거리와 주석 해석 위주의 교육으로 학습자에게 '학습된 무력감'[1]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고전시가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학습된 무력감'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학습 동기'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과정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 의욕이다.[2]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 동기는 학습자의 무력감을 흥미로 바꿔주는 추진력이다. 학습 능력이 아무리 높은 학생이라도 학습 동기가 없으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 하지 않는다. 반면에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은 비록 자신의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더라도 학습에 몰입하게 된다.

학교 현장에서 고전시가 작품 학습에 대한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습자의 '공감(共感)'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공감(共感)'이란 "남의 감정이나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게 느끼

1) 학습된 무력감이란 셀리그먼(Seligman, 1974)에 의해서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하여 상정된 개념이다. 개에게 전기 쇼크를 주고 개로 하여금 전기 쇼크를 중단하게끔 학습시킨 후에, 실험적 조작에 의해서 그 개가 전기 쇼크를 도저히 중단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개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학습된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시가 교육에서 고어해석은 학습자에게 지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업 시작 전에 그것을 ò 키상한 학습자는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이명기 외,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4, 100면 참고.)

2) 권대훈,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6, 311면.

는 기분"을 뜻한다.[3] 학습자는 '공감'을 통해 작품 속 화자[4]와 같은 시간과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화자의 정서, 어조,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화자를 창조해낸 작자를 확인하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습자에게 작자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까지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생길 수 있다. 요컨대, 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우선되었을 때 '학습'은 보다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는 원전과 주석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과정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작품의 작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작품 창작 배경을 학습자에게 교육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문헌적 해석에만 치중된 학습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잃게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배경 지식에 대한 교육보다는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석을 교육하는 경향으로 기울고 있다.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석은 작품의 의미와 학습자 스스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경험과 결합하여 내재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작품 자체의 이해와 감상은 능동적인 작품 이해 활동이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작품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구성해 낼 수 있다.

고전시가의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석에서 최근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화자'이다. 특히 '화자'를 통해 작품을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중세부터 근세까지의 고전시가 창작자들인 양반 남성이 자신의 성별과 관계없이 여성 화자를 선택했다는 점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4) 화자란 용어는 어조(tone), 서정적 자아, 페르소나(persona), 내레이터(narrator), 목소리(voice) 등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애초에는 배우가 본모습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의미가 짙었지만 점차 문학용어로서 독립성을 지니게 되었다. (권정은,「여성 화자 가사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2, 9~11면 참고.)

‘여성 화자’는 당시의 정치·문화적 배경에서 ‘버려짐’, ‘두려움’, ‘불만’, ‘욕망’ 등의 사대부 작자가 지닌 심정적인 원망을 보다 실감나게 드러내고, 이를 통해 임금에 대한 불만을 빗대어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5] ‘임금과 신하’라는 공식적인 관계를 ‘남성과 여성’이라는 개인적인 관계로 빗대어 말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여성 화자를 통해 표출할 수 있었다.

그간 국문학에서 ‘여성 화자’와 관련된 논의는 고전시가 작품의 작자와 여성 화자의 목소리의 ‘性’의 일치 여부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여성’과 ‘화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작품을 파악하려 했고, ‘임’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남성 작자와 시대가 원하는 여성상을 반영한 ‘타자[6]화된 여성 화자’라는 사실을 규명하려 했다. ‘타자화된 여성상’이란 과거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남성 작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현된 여성의 양상이다.

이와 같이 고전시가의 여성 화자 논의가 이루어진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고전시가의 여성 화자가 특정한 모습으로 유형화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고지순한 여성상과 타자화된 여성상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보편성과 관습성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로 남성 작자가 여성 화자를 선택한 것은 공감의 감성적 주체로서 여성의 목소리가 시적 울림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고전시가에서 ‘여성 화자’는 사회적·문화적·정서적으로 커다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가사문학에서 가장 많이 애독되고 상찬되어 온 송강 가사 역시 여성 화

---

5) 정인숙, 『가사문학과 시적 화자』, 보고사, 2010, 138면.

6) 타자(他者)라는 용어는 『제 2의 성(The Second Sex, 1953)』에서 시몬느 드 보봐르가 발전시킨 것이다. 타자성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가부장제 안에서 열등한 존재인 여성은 스스로가 현실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성에 의해 인식되고 규정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권정은, 앞의 논문, 14면에서 재인용.)

자의 목소리에 기반한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시가에서 산맥을 이어오고 있는 여성 화자의 계보에서 타자화되고 소외된 여성의 양상이 드러나는 <속미인곡>에 주목하였다. 송강 정철(1536~1593)의 <속미인곡>은 유배가사와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을 이어 창작된 것으로 고전시가에서 유일하게 단일 여성 화자가 아닌 복수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이다. 여성 화자가 작품을 이끌어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문학적 의미해석 하는 데 있어 복수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여성 화자와 관련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화자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문학 연구에서는 이미 충신연주지사 이상의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단순히 사대부 남성의 대리자적 존재가 아닌 남성 작자와 시적 화자와의 공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수용자의 시선까지도 함의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7] 이러한 두 가지 여성상은 시적 화자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보다 면밀히 교육될 수 있다.

여성 화자의 양상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어교육의 여성 화자 반영 양상을 논의한 연구는 미진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우리 문학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임금을 향한 충정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작자가 설정한 표현의 효과로만 의미를 한정하여 학습자에게 교육되고 있다. 즉, 고전시가의 '여성 화자' 문제에 주목하여 많은 연구[8]가 이루어졌지만, 국어교육에서 '여성 화자'는 작품의 주체적 양상이 아니라 남성 작자의 개인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전제 하에 교육되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여성 화자를 표현의 수단으로 교육하는 학교 현장에

---

7) 박상영, 「고전 시가 속 여성 형상의 제시 양상과 그 시가사적 함의」, 『韓民族語文學 』제6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8, 324면.
8) 2. 선행연구 검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서 시적 화자에 대한 학습자의 '공감'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을 학교 현장에서 강조하다 보니 정서의 <정과정>이나 정철의 <속미인곡>이 나오면 무조건 '충신연주지사'로 학습자에게 인식시키는 편협성이 나타나기도 한다.[9] 국어교육에서 정서의 <정과정>이 정철의 <속미인곡>과 함께 충신연주지사와 여성 화자의 맥을 잇는다고 보고 있지만 '타자화된 여성의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속미인곡>과 <정과정>은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정과정>의 여성 화자는 작품 안에서 화자의 '性'을 나타내는 지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노래의 화자를 남성이라고 보아도 전혀 이상할 것 없다. 그러나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는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화자의 이별과 기다림의 상황과 화자의 피동적인 태도로 인해 화자가 여성이라고 쉽게 짐작해버린다.

이것은 사람들이 작품을 접했을 때 작자의 의도적 설정을 생각하려는 것보다 작품을 수용하고 향유하는 입장에서 '공감성'에 더 주목하기 때문이다.[10] 예를 들어 <정과정>의 'ㅅᄋᆞㄹ옷븐뎌 아으'에서 '아으'와 같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격정적인 언어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와 같은 한과 애원, 독백 등의 뒤엉킨 감정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수용자는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다. 이처럼 쉽게 개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성 화자의 역할은 고전시가에서 하나의 '문화적 표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11] 즉, 여성 화자는 한국 문학에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특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용자의 '공감성'을 근거로 국어교육에서는 <속미인곡>을 충신

9) 한창훈,『고전문학과 교육의 다각적 해석』, 역락, 2009, 27면.
10) 김대행은 생리학적 성과 문화적인 성별을 구분하고 여성 화자 설정의 근거를 시적 화자와 공감하려는 독자의 의지가 만들어낸 문화적 성별인식이라 주장하였다. (김대행, 『고전문학과 여성 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 월인, 2003, 14~16면 참고.)
11) 김대행, 앞의 책, 15면.

연주지사의 전통을 잇고 있는 작품이라는 문학적 특성에만 치중하여 학습자에게 교육하고 있다. 또한, 현행 문학 교과서에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복수 여성 화자의 대화를 분석하거나 작자가 '여성 화자'를 선택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학습활동을 통해 남성 작자가 수용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개인적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여성 화자를 설정한 창작 의도를 짐작한다. 그러나 한국 문학의 전통을 잇는 것은 연군지정을 표현하기 위해 작자의 성별을 떠나 표현의 효과로 한정된 의미를 지닌 '여성 화자'가 아니다. 그것은 충신연주지사라 일컬어지는 작품 속에 드러나는 남성 작자와 독자의 시선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 화자의 양상인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문학 교육의 목표를 "통시적·공시적으로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맥락 문학의 제반 양상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이해함으로써 예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12]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전시가 교육에서 학습자는 작품 속에 드러난 여성 화자의 양상을 통해 당시의 수용자와 현대의 학습자가 처해 있는 삶의 총체성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것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고전시가의 여성 화자 양상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문학 교육의 목표에 따르면 문학 교육의 핵심은 학습자가 문학이 작자에 의한 창조물이지만, 그 속에는 당대의 삶을 이루는 복합적인 시선이 관여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13] 특히 충신연주지사로 치우쳐 교육되고 있는 <속미인곡>의 시적 화자인 여성의 타자성을 교육하는 것은 작품을 둘러싼 정치·문화·역사적 장막을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12)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고시 제14호, 2012, 134면
13) 한창훈, 앞의 책, 32~33면.

될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에 관한 교육은 충신연주지사에 치우쳐왔고 고전시가 전체의 거시적 흐름 속에서는 논의되지 못 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이 연구는 우선 고전시가의 여성 화자 논의를 대상으로 논의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으며 그 성과의 반영에 따른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제시 양상을 2011개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충신연주지사'로 교육되던 <속미인곡>을 고전시가에서 사회적·문화적으로 커다란 산맥을 이어온 '타자화된 여성 화자'라는 흐름 속에서 국어교육의 반영 실태를 알아보고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선행연구 검토

가. 고전시가에 나타난 여성 화자 연구

한 작자가 시적 화자를 선택하는 일은 전통과 같은 제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작자 자신의 고유한 창작기법에 의해 결정[14]되기 마련이다. 작자는 자신의 작품 구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시적 화자를 선택한다. 이때 시적 화자의 성별이 다를 수 있는 있는 데, 고전시가에서 여성 화자의 관한 논의의 쟁점은 시적 화자와 작자의 '性'의 일치 여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여성 화자에 관한 논의는 박혜숙의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다. 박

14) 조세형, 「송강가사에 나타난 여성 화자와 송강의 세계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6, 160면.

혜숙(1998)[15]은 시적 화자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성으로서 말하기', 실질적 주체인 남성이 텍스트 내부에서 자신을 여성에 비유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 내고 있으되 진짜 여성이 아니라는 표지를 곳곳에 흘려 놓는 경우를 '여성에 빗대어 말하기', 그리고 자신이 남성임을 숨기려는 의도 없이 텍스트 내부에서 여성을 대상화하여 모종의 미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를 '여성인 체 말하기' 로 실제적 주체와 텍스트의 화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여성으로서 말하기'에는 <가시리>, <동동>, <서경별곡>과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질적인 <상저가>가 있다. 그리고 '여성에 빗대어 말하기' 시의 대표적인 유형은 '충신연주지사'로 고려속요의 <정과정>과 가사의 <속미인곡>이 대표적이다. '여성인 체 말하기'에는 "간반에 자고 간 그 놈 아마도 못 이져라"는 사설시조가 그 대표적 예가 된다.

정인숙(2001)[16]은 작자와 시적 화자 사이의 '性'의 일치 여부에 따라 연군가사와 애정가사를 "異性話者型", "同性話者型", "兩者混合型" 이라는 세 가지 목소리의 유형으로 요약하였다. "이성화자형"이란 작가가 자신과는 다른 性을 가진 화자의 목소리 유형으로 시적 화자 사이에 性의 교차가 일어난다. "동성화자형"은 작자가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화자의 목소리 유형으로 性의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 "양자혼합형"이란 동성화자의 목소리와 이성화자의 목소리가 부분적으로 혼합된 유형이다. 또, 연군가사를 남성 작자군에 의해 창작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여성 화자를 설정하는 장르적 특징을 지닌 작자와 시적 화자의 관계에 주목하여 파악하고 있다.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을 사모하는 내용을 담은 연군가사의 경우 전통적으로 신하가 임금을 향한 심정을 여성이 남성을 그리워하는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

15) 박혜숙, 「고려속요와 여성 화자」, 『고전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5~28면.
16) 정인숙, 앞의 논문, 1~141면.

기에 이성화자형 목소리 설정이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연군가사 가운데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은 군신의 처지를 남녀의 관계로 비유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안대희(2001)[17]는 18세기라는 특정 시기를 설정하여 사대부 남성 작가의 여성 화자시는 "사랑의 감정에 목마른 사대부의 대리욕구"의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18세기의 조선 사회의 통념 아래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부각시켰음을 공시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그러한 사랑의 애정 관계에 대한 남성적 욕구가 한시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무조건적으로 여성 화자를 타자화된 여성상으로 몰아가는 문제점을 상기시킨 연구도 있었다. 이수곤(2007)[18]은 여성 화자의 성격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을 경계하고 이른바 여성의 타자화가 모든 작품에 적용가능한 절대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 여성 스스로가 타자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강력한 주체에 의해 타자로 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사회적·문화적 흐름에 의해서 여성의 경험을 단일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비판하고 시구가 지닌 어휘적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여성 화자의 타자화'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방향으로 그동안의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자와 화자의 관계를 떠나 작품 안에서의 여성 화자와 임과의 사랑에 관한 태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로 보인다.

고정희(2006)[19]는 어떤 작품을 연군시가로 유통시킬지 애정시가로 유통

17) 안대희, 「18세기 여성 화자시 창작의 활성화와 그 문학사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6, 127~156면.
18) 이수곤, 「<정읍사>의 여성 화자 태도와 그 의미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385~416면.
19) 고정희, 「고전시가 여성 화자 연구의 쟁점과 전망」, 『여성문화연구』 제15집, 한국여성문학회, 2006. 6, 7~31면.

시킬지 결정해 주는 것은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작가의 성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남성 작자가 자신의 남성임을 숨기려는 의도를 지녔는지 그러한 의도가 없었는지에 따라 구분한 박혜숙의 '여성인 체 말하기'와 '여성에 빗대어 말하기'의 구분이 애매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 시학을 강조하는 입장과 여성주의적 입장이 각각 남성젠더화된 글 읽기와 여성젠더화된 글 읽기 방식에 기초해 있으며 둘 다 당파적인 동시에 양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음을 강조한다. 또, 앞으로의 고전시가의 여성 화자 연구 시작을 공시적 관점에서 통시적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최홍원(2009)[20]은 남성 작자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내는 관계 치환의 언어 활동에 주목하여 여성 목소리의 차용의 전통적 가치를 고찰하고 '충신연주지사'의 관습적 문화적 흐름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치환의 현상은 문화적 관습을 이어 온 결과뿐만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는 위계의 차원에서 자신의 약자성을 더욱 강조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고유의 표현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군신의 관계가 남녀의 연인 관계로 치환되면서 '목소리 낮추기를 통한 호소의 전략'으로 표현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치환 현상에만 주목하여 연군가 작품에 드러난 여성 화자의 양상은 분석하지 못하였다.

박상영(2013)[21]은 고대가요에서 고려속요에 이르는 시가적 흐름 속 여성 형상의 일면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그 미학적 함의를 고찰하고 있다. 고대가요에서 고려속요에 이르는 일련의 시기를 서정성의 전통을 확립했던 시기로 보고 여성의 형상을 갈래별로 나누어 그 시대의 여성상을 논하고자 하였다. 그는 고려속요에서 오래전부터 남성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20) 최홍원, 「고전시가 관계 치환의 교육내용 연구- 남성 작자의 여성 화자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28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4, 605~640면.
21) 박상영, 앞의 논문, 297~340면.

해 하나의 시적 화자 또는 대리자적 존재로 여성을 이용해 왔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때 여성은 남성의 대리자적 존재이자 남성 작자와 독자의 시선까지도 함의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 화자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화자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우선 고전시가 작품의 작자와 여성 화자의 목소리의 '性'의 일치 여부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여성'과 '화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작품을 파악하려고 한다. 또한, 당시의 시각에서 임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남성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 화자'인 것인지 규명하려 한다. 결국 고전시가에서 여성 화자 연구는 남성 작자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 화자'의 양상을 도출해 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22]

그러나 여성 화자의 목소리에 관한 이러한 많은 연구 성과와는 달리, 이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교육 되는 양상을 연구한 논의는 부족하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복수 여성 화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여성 화자 분석이 필수인 <속미인곡>에서 조차도 여성 화자를 단지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작자가 설정한 표현 효과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을 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속미인곡>의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은 여성 화자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시가에서 여성 화자의 양상을 살피는데, 유배가사이자 충신연주지사인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는 작품으로 <속미인곡>의 전통성에 주목하여 '여성 화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려 한다. 학습자는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교육을 통해 시적 화자를 단순히 공감하는 데서 시작하여 그 양상을 살피는 사고 과정까지 거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문학의 전통적 특질인 '타자화된 여성 화자' 양상을 학습자가 파악할 수 있

22) 이수곤, 앞의 논문, 385면.

도록 하고, 학습자가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작품을 고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그 동안 논의 되어온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연구

<속미인곡>에 관한 연구는 송강 정철(1536~1593)이 살았던 그 시대부터 작품의 평가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축적되어 있어[23] 이제까지의 그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연구주제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24] <속미인곡>의 서술방식인 '대화체'를 중심으로 그 형식과 내용분석을 시도한 박춘우(1996), 서영숙(1999), 김선기(2012)의 연구[25]와 그러한 서술방식에서 더 나아가 <속미인곡>을 심리적으로 고찰하여 새롭게 해석한 박태진(2011)과 이유진(2007)의 연구[26]도 있었다. 또, 송강가사 작품 전반의 공간에 관한 미학적 특질을 고찰하는 박상영(2014)의 연구[27]도 있었다.

---

23) 박춘우는 송강 정철과 동시대를 산 이수광(1563~1628)의 <속미인곡>에 관한 評부터 시작하여 근대 이후의 송강가사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박춘우, 「<속미인곡>연구」, 『우리말 글』 제14집, 대구어문학회, 1996. 6, 324~329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24) 박영주, 「송강문학 연구의 흐름과 방향」, 『고시가연구』 제3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4. 2, 107~183면.

25) 박춘우, 「<속미인곡> 연구」, 『우리말 글』 제14집, 대구어문학회, 1996. 6, 323~344면.; 서영숙, 「속미인곡의 서술방식과 의미」, 『한어문교육』 제7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9. 12, 149~174면.; 김선기, 「<속미인곡>의 창작기법 고찰」, 『고시가연구』 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2, 67~89면.

26) 박태진, 「<속미인곡>의 서술 방법에 나타난 상담의 특징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제2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구, 청관고전문학회), 2011. 2. 28, 47~72면.; 이유진, 「<사미인곡>·<속미인곡>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문학치료연구』 제7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8, 145~168면.

27) 박상영, 「송강가사의 담론 특성에 관한 일고찰」, 『語文學』 제125집, 한국어문학회, 2014, 183~213면.

다음으로 <속미인곡> 속에 등장하는 여성 화자에 주목하여 화자 분석을 시도한 논의를 살펴보자.

이혜순(1997)[28]은 <속미인곡>에 드러난 여성 화자의 세계와 인식을 모두 남성 작가에 의해 형상화된 것으로 보고 당대 사대부들의 여성관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라 판단했다. 당시 사대부 작자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존재 의식도 <속미인곡>속의 여성 화자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자기 비하적 발언과 자기 옹호적 발언을 반복으로 구현된다. 그러나 그런 의식들이 사대부 스스로 철저한 자기반성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설적이 표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권정은(2000)[29]은 실제 작자인 사대부와 여성 화자의 심리적 거리의 중간형으로 보고 '서정적 자아형'에 속미인곡을 포함시켰다. 이 유형에 등장하는 여성 화자는 그 무엇보다도 정치적, 역사적 함의가 부각된 독백적 한탄을 통해 사대부의 입장을 대신 전해주는 존재로 보았다.

조세형(2002)[30]은 송강이 <속미인곡>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를 '여성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고찰하고 있다. 작품에 드러나는 여성 화자들이 송강의 현실 지향성과 초월 지향성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그러한 양가적 성향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 여성 화자를 선택한 이유를 남성 사대부인 송강의 내면 원리로서의 여성성을 가사 작품에 구현시키고, 봉건 사회에서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 신하의 위치가 여성 화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최규수(2002)[31]는 여성 화자의 문제를 자의식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접

---

28) 이혜순, 「15·16세기 한국 여성 화자 시가의 의의」, 『韓國文化』 제19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6, 67~87면.
29) 권정은, 앞의 논문, 1~100면.
30) 조세형, 앞의 논문, 157~187면.
31) 최규수, 「송강 시가에서 자의식의 비유적 형상화와 여성 화자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12, 263~289면.

근하여 여성 화자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즉 <속미인곡>에 여성 화자는 송강의 자의식을 표출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논의한 것이다. 작품의 화자 설정을 작가의 내면 의식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이러한 의식을 여성 화자의 하소연을 통해 말로 푸는 해결 방식을 선택했다고 분석하였다.

임주탁(2012)[32]은 <속미인곡>이 서술자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 화자를 표현 수단으로 언어적 특성을 잘 살리면서 작가의 마음까지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은 송강이 <사미인곡>에서 풀어내지 못한 생각과 감정을 서술 주체와 여성 화자로 <속미인곡>에 분리 독립시킨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에 관한 연구들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미인곡>은 남성 작자인 정철이 여성 화자를 내세워 개인적 감정을 드러낸 작품이다. 둘째,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작자의 내면 의식, 세계관의 표출의 구체적 구현이다. 셋째,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서술자인 남성 사대부들의 시각에 의해 철저히 타자화 된 목소리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대의 남성들 사이에서는 여성의 순종을 미덕과 적극성으로 봐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논의는 고전시가에서 여성 화자 연구가 진전되면서 타자화된 여성 화자의 양상이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속미인곡>을 의미 있는 교육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고전시가의 여성 화자라는 전통적 흐름 속에서 철저히 타자화된 여성 화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교수-학습의 체계화가 앞으로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

32) 임주탁, 「<속미인곡>의 화자 분석과 작품 해석」, 『한국문학논총』 제60집, 한국문학회, 2012. 4, 310면.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어교육에서 여성 화자 시가의 흐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속미인곡>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양상을 학습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면밀한 고찰을 통한 시적 화자 교육과 상통한다.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의 양상과 나아가서는 그에 따른 장르적 특징까지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지도해야 한다.

3. 연구 방법 및 대상

고전시가 작품에서 시의 화자를 '여성'으로 추정하는 작품은 고려속요의 <서경별곡>, <가시리>, <정과정> 등과 가사의 <만분가>,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의 시적 화자는 모두 사모하는 임과의 이별이라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끊임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다시 임과 함께 있기를 염원한다.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임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작품의 작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화자가 '여성'임을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전시가에서 '여성 화자'[33]의 문제는 한국문학사의 맥을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전시가 작품의 여성 화자

33) 여성 화자란 여성이 갖는 특별한 개체의 음성을 통해 작자의 심리적 상태를 전달하는 가상의 목소리로 이 목소리는 어조, 정서 등과 결합하여 한 갈래의 장르적 성격을 대변하는 기제가 되기도 하며 갈래 간 의미를 따져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권정은,「여성 화자 가사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0. 2, 9~11면; 박상영,「고전 시가 속 여성 형상의 제시 양상과 그 시가사적 함의」, 『韓民族語文學』제6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8 , 297~300면 참고.)

의 양상'에 주목하여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이는 그동안 '여성의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가 점차 지나면서 남성들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상의 의미망이 뚜렷이 드러난 결과이다. '타자화된 여성 화자'란 그 시대가 추구하는 여성성과 남성 작자에 의해서 남성 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부여된 상징적 특징을 지닌다.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사랑의 감정에 메마른 사대부의 대리욕구의 한 방편이자 자신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임에 의해 대상화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존재이다. 그러나 문학 교육에서 <속미인곡> 작품 자체의 여성 화자 양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타자화된 여성의 형상'이 남성에 의해 철저히 '대상화된 여성상'[34]으로 <속미인곡>의 두 여성 화자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관한 교육은 '충신연주지사'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충신연주지사에 치중된 <속미인곡> 교육의 문제점과 그와 관련된 국어 교과서의 여성 화자 교육의 교수·학습방안을 토대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속미인곡>에 드러난 여성 화자 양상을 중심으로, 다른 작품과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속미인곡>에 드러난 여성 화자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여성 화자 양상을 통해 장르적 특징까지 알 수 있도록 교육 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속미인곡> 교육의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양상 교육의 편협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교육적 목표'[35]를 실현하는 근거가 되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여 여성 화자

34) 우리 문학사에서 오랫동안 주변부 타자로서 남성의 피소나로서 등장한 여성 화자의 양상으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 (박상영, 앞의 논문, 322~330면 참고.)

35) 문학텍스트는 독자의 독서를 통해 비로소 '작품'으로 구체화된다. 즉 독자들이 그 문학텍스트에 대해서 처음 형성되었던 의미의 기대를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넓히고 변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문학 읽기의 과정이며, 이 과정

의 교육 양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교과서를 통하여 배운 작품은 다른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준거가 되기도 한다.[36] 이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을 <속미인곡>이 수록되어 있는 현행 고등학교 11종의 2011 개정 문학 교과서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속미인곡>에서 학습자의 여성 화자 교육을 위한 학습 활동 양상이 어떻게 전개 되고 있는지를 비롯하여, 여성 화자의 특성을 학습자들이 다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현행 문학 교과서에서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교육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속미인곡>이 수록된 현행 문학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통해 여성 화자 교육의 교과서 반영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속미인곡>이 수록된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확인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교과서 학습 활동이 각각의 교과서 목표에 맞게 잘 구성되었는지를 학습 활동 내용을 기준을 설정하여 나눠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속미인곡>의 학습 활동 양상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내용적 분류로 <속미인곡>의 학습 활동 양상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충정의 표현 기제인 여성 화자의 측면과 학습자에게 현재 교육되고 있지 않은 타자화된 여성 화자의 특성을

속에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설명 그리고 평가의 과정이 모두 포괄되는 것이다. 결국 텍스트의 구체화라는 것은 독자들의 작품에 대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체험은 독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의식과 정서에 변용을 가져오고, 그 결과 문학 능력과 더불어 문학을 보는 안목이 자라게 된다.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도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는 문학교육의 목표에 해당된다.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진원, 2009, 207면 참고.)

36)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진원, 2009, 208면.

비교하여 논의할 것이다. <속미인곡>이 '충신연주지사'로 주목 받아왔지만 여성 화자의 특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드러나는지 살피고 앞 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간과되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지고지순한 여성상과 타자화된 여성상을 함께 고려하여 <속미인곡>에 드러나는 고전시가의 여성 화자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속미인곡>의 타자화된 여성 화자의 특성을 다룬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근거를 삼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교육을 교수·학습하는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교육을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구안해 보도록 하겠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II.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교육의 실제

“문학 교재는 교육과정과의 관련에서 보면 문학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수단적 자료이며 도구”이며, “문학텍스트는 교사와 학생을 매개하는 매재(媒材)”이다.[37] 매재(媒材)로서의 교재는 ‘교수·학습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본질적으로 표상적인 물리적 실체’로 정의할 수 있다.[38] 따라서 문학교재이자 문학텍스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및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구체물이라고 할 수 있다.[39] 교과서는 교사와 학습자를 잇는 매재로서 교사는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에게 작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화자’에 대한 교육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교육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현행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여성 화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속미인곡>이 수록된 교과서의 현황을 정리하고 2절에서는 작품이 실린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여성 화자에 대한 교육 양상을 일별해 보도록 하겠다.

---

37) 구인환 외, 앞의 책, 203~207면.
38) 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2009, 89면.
39) 최지현 외, 앞의 책, 86면.

1. 『문학』 교과서의 <속미인곡> 수록 현황

<속미인곡>은 천재교육(김), 천재교육(정), 창비, 지학사, 비상교과서, 비상교육, 상문연구사, 두산동아 문학교과서 등 총 11종의 『문학』 교과서[40] 중 8종에 수록되어 있다. 다른 가사들이 많아야 3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에 비해 <속미인곡>의 수록 횟수는 월등히 많은 수치다. 그만큼 <속미인곡>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요한 문학적 교육과정으로써 거쳐야 하는 작품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그런데 <속미인곡>이 실려 있는 단원은 8종의 교과서들이 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속미인곡>은 '가사'라는 장르적 특성과 더불어 다양한 관점에서 매재가 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수록단원별로 <속미인곡>을 다루는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1> 2011 개정 『문학』 교과서의 수록 단원[41]

문학교과서	<속미인곡> 수록 단원
천재교육(김)	Ⅱ.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2. 한국 문학의 성격 (2)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1) 속미인곡
천재교육(정)	Ⅱ. 한국 문학의 이해 1. 한국 문학의 특성 (1)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1) 속미인곡
창비	Ⅲ. 한국 문학의 역사 2. 조선 시대의 문학 (1) 속미인곡
지학사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2) 중세 문학 1. 속미인곡
비상교과서	5. 한국 문학의 특질 1. 한국 문학의 전통 (1) 속미인곡

40) 2013 교과서 검정 본심사 결과 창비(박종호 외), 지학사(권영민 외), 천재교육(김윤식 외), 미래엔(윤여탁 외),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이숭원 외), 천재교과서(정재찬 외), 비상교육(한철우 외), 비상교과서(우한용 외), 해냄에듀(조정래 외), 두산동아(김창원 외), 교학사(김동환 외), 상문연구사(김대용 외) 등 총 11종의 교과서가 합격하였다.

비상교육	Ⅱ.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2. 한국 문학의 역사 (2) 조선 시대의 문학 3. 속미인곡
두산동아	Ⅲ.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1) 3. 한국 문학의 성장(조선시대)
상문연구사	Ⅱ. 문학과 삶 2. 사람들과 문학 (2)이별

위의 표는 <속미인곡>이 수록되어 있는 대단원명과 소단원을 주요 지표로 분류해 본 것인 바,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라는 큰 틀 속에서 <속미인곡>의 문학적 특징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속미인곡>이 수록된 단원은 대부분 한국 문학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한국 문학사의 내용 체계 안에서 특질이나 전통, 갈래 단원에 통합되어 구성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상문연구사에는 <속미인곡>이 '문학과 삶'의 대단원[42]에 수록되어 있어서 다른 7종의 교과서와 내용 체계 면에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미인곡>을 문학 장르 체계의 하위 범주로 구속하지 않고 문학과 삶이라는 보다 큰 틀을 적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여타의 교과서들과 다른 방식이다.

41) 2011개정 『문학』 교과서의 단원은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의 내용의 영역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 한국 문학과 사회 •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고시 제14호, 2012, 143면 참고.)

42) 상문연구사에는 <속미인곡>이 다음의 내용 체계에 따라서 수록되어 있다.

문학과 삶	• 문학과 자아 • 문학과 사고 • 문학과 삶의 다양성 • 문학과 공동체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고시 제14호, 2012, 143면 참고.)

대단원인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에서는 '기능'과 '태도'의 내용 영역보다 '지식' 범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43]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는데, <속미인곡>이 수록된 8종 교과서의 대단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2> 2011 개정 『문학』 교과서의 대단원 학습 목표

문학교과서	<속미인곡> 수록 단원
천재교육(김)	1. 한국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2. 대표적인 작품들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3.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의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천재교육(정)	1.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2.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외국 문학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문학을 이해한다.
창비	1.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 문학 갈래의 역사적 전개와 구현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지학사	1. 이 시기 문학의 역사적 전개 양상과 갈래별 특질을 이해할 수 있다. 2. 이 시기 문학의 주요 작품을 현대적 시각에서 감상할 수 있다. 3. 이 시기의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4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고전문학과 정서 교육』, 월인, 2014, 237면.

비상교과서	1.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2.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비상교육	1.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2.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3. 한국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4.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두산동아	1. 대표적인 고전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2. 한국 고전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3. 한국 고전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4.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상문연구사	1. 문학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2.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할 수 있다. 3.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 4. 문학 활동을 통하여 삶의 터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천재교육(김), 비상교육, 두산동아는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의 내용 체계에 따른 성취 기준인 (7), (8), (9), (10)의 성취 기준'[44]을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천재교육(정)과 비상교

44)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의 내용 성취 기준은

과서의 학습 목표에는 성취 기준 (7)과 (10)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창비는 (8)과 (10)의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학사는 시기에 따라서 학습 목표를 '문학의 역사적 전개 양상'과 '현대적 시각에서 문학 작품 감상하기' 그리고 '문학 작품 감상을 통해 시대 상황 이해하기'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8)과 (9)의 성취 기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상문연구사는 나머지 7종의 교과서와 달리, <속미인곡>이 대단원 '문학과 삶'에 수록되어 있어서 성취 기준도 '문학과 삶'의 내용 체계에 따르고 있다.[45]

분석 결과 <속미인곡>이 수록된 8종의 교과서 중, 천재교육(김), 천재교육(정), 비상교과서, 비상교육, 두산동아의 5종의 교과서 학습 목표가 동일하였다.[46] 창비는 (8)과 (10)의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두어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고, 지학사의 학습 목표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8)과 (9)의 성취 기준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문연구사는 '문학과 삶'의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음과 같다. (7)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9) 한국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10)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고시 제14호, 2012, 145~146면 참고.)

45)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문학과 삶'의 내용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1)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 (12) 문학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이를 표현한다. (13)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14) 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고시 제14호, 2012, 146~147면 참고.)

46) 천재교육(정)과 비상교과서는 학습 목표에서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의 성취 기준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7)과 (10)의 성취 기준이 천재교육(김), 비상교육, 두산동아의 성취기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았다.

2. <속미인곡>의 『문학』 교과서 학습 활동 양상

위에서 살펴보았던 '<표-2> 2011 개정 『문학』 교과서 대단원 학습 목표'[47]를 토대로 한다면 학습 활동 내용 역시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각각의 학습 목표, 성취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속미인곡>이 수록된 8종 교과서의 학습 활동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속미인곡>이 수록되어 있는 2011개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학습 활동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한 기준이다.

1. 두 여인 (갑녀와 을녀)의 대화 구분 활동을 통한 역할 정리 학습 활동.
2. <속미인곡>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작자의 의도와 효과 학습 활동.
3. <속미인곡>에서 드러난 여성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는 학습 활동.
4.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을 잇는 <속미인곡>의 특징과 관련된 학습 활동.
5. 갈래적·형식적 특징과 가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학습 활동.
6. 한국문학의 특질과 관련하여 <속미인곡>의 가치를 묻는 학습 활동.
7. <속미인곡>에 표현된 단어나 구절의 뜻을 묻는 학습 활동.

이 논문에서는 기준 5~7에 따른 학습 활동은 제외하고 여성 화자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라고 판단되는 기준 1~4의 학습 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기준 1의 대화 구분을 통한 역할 정리 활동은 <표-3>과 같다.

---

47) <속미인곡>이 수록된 8종의 교과서 중, 천재교육(김), 비상교육, 두산동아, 천재교육(정), 비상교과서의 5종의 교과서 학습 목표는 동일하였고 창비, 지학사, 상문연구사는 다르게 분석되었다.

<표-3> 두 여인(갑녀와 을녀)의 대화 구분을 통학 역할 정리 활동

출판사	대화 구분을 통한 역할 정리 학습 활동
천재교육(김)	▷ 2.이 작품을 갑과 을 두 여인의 대화로 볼 때, 아래의 (1)~(5)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자.
천재교육(정)	▷ 1.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두 여인을 '갑녀(갑녀)'와 '을녀(을녀)'로 구별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창비	▷ 1.이 작품은 중심 화자(을녀)의 이야기를 보조 화자(갑녀)가 들어 주는 대화체 형식을 취한다. 다음 구절에 드러난 보조 화자의 역할을 알아보자.
지학사	▷ 1.속미인곡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이 작품은 두 여인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비상교과서	▷ 1.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두 여인을 '갑'과 '을'이라 할 때, 작품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
비상교육	▷ 1.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체로 되어 있다.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를 '갑녀'와 '을녀'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해 보자.
두산동아	▷ 1.속미인곡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1)이 작품은 두 여인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의상 두 여인을 '갑녀'와 '을녀'로 구별하여,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상문연구사	▷ 1.이 작품의 내용은 대화를 통해 전개된다. 아래 빈칸을 채워 정리해 보자.

<속미인곡>에서 화자의 대화 구분을 통한 작품 분석은 학습자로 하여금 내용적으로 작품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복수 화자의 대화체로 구성된 <속미인곡>에서 대화 구분을 통한 역할 정리 활동은 속미인곡이 수록된 천재교육(김), 천재교육(정), 창비, 지학사, 비상교과서, 비상교육, 두산동아, 상문연구사 등 총 8종의 문학 교과서에서 모두 실려 있었다.

천재교육(김)과 비상교육에서는 '갑의 질문→을의 답변→갑의 위로→을의 하소연→갑의 조언' 으로 작품의 내용을 구분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천재교육(정)에서는 작품이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갑'녀와 '을'녀의 대화 부분을 대화의 시작과 끝으로 구분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각 대화마다 핵심내용을 정리하게 하여 '갑'녀와 '을'녀의 역할을 정리하는 활동을 설정하고 있다. 창비는 중심화자(을녀)와 보조화자(갑녀)로 구분하여 보조화자의 역할을 알아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지학사는 여인1과 여인2의 대화 양상을 분석하는 활동을 수록하고 있다. 비상교과서와 두산동아는 두 여인을 '갑'과 '을'이라 할 때, 작품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상문연구사는 말풍선을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대화를 정리하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대화 구분을 통한 역할 정리 학습 활동이 <속미인곡>이 수록된 8종의 교과서 모두에서 다루어진 분석 결과에서 8종의 교과서 모두 <속미인곡>이 복수 화자의 대화로 이루어진 작품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준 1과 관련된 학습 활동은 성취 기준이 다르더라도 8종의 교과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기준 2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분석한 표이다.

<표-4>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작자의 의도와 효과에 관련된 활동

출판사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작자의 의도와 효과를 묻는 학습 활동
천재교육(김)	▷ 4.이 작품이 여성을 화자로 한 '충신연주지사'라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1)이 작품의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호칭을 찾아보자.

천재교육(정)	▷ 2.(가)는 여성적 목소리의 전통을 설명한 글이고, (나)는 이 작품과 작가에 대한 정보이다. 잘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시적 화자(을녀)의 처지와 작품 창작 당시 작가의 처지를 비교해 보자. (2) 작가가 이 작품의 시적 화자(을녀)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를 말해보자. (3) (1)과 (2)를 고려하여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말해보자.
비상교과서	▷ 3.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이 지닌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살펴보자. (2)작가가 여성을 화자로 내세운 이유를 작가의 창작 의도와 관련지어 말해 보자.
비상교육	▷ 3.작품을 창작할 당시 작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의 창작 의도를 살펴보자. (2)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 말해 보자.
두산동아	▷ 1.속미인곡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2)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와 그 효과를 생각해 보자.
상문연구사	▷ 3. 이 작품은 작가가 유배지에서 지은 작품이다. 이를 고려하여 작가가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를 토의해 보자.

<속미인곡>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작자의 의도와 효과 학습 활동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천재교육(김), 천재교육(정), 비상교과서, 비상교육, 두산동아, 상문연구사 등 총 6종의 교과서에 학습 활동으로 실려 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모두 작자의 의도를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을 잇는 <속미인곡>의 특징과 관련된 학습 활동까지 연계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기준 2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 목표로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작자의 이유와 작품에서의 효과를 묻는 학습 활동이다. 이러한 목표를 학습 활동에 구현하는 교과서는 천재교육(김)의 교과서이다. 둘째, 작자의 창작 의도까지 확장하여 학습자가 생각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학습 활동에 구현하는

교과서는 천재교육(정)의 교과서가 있다. 셋째, 작자가 시적 화자로 여성을 내세운 이유를 작자의 창작 의도와 관련지어 말해보는 학습 활동이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는 교과서는 비상교과서, 비상교육, 두산동아, 상문연구사의 교과서이다.

이러한 학습 활동에서 목표로 삼는 것은 <속미인곡>을 창작한 작자의 의도가 임금을 향한 충정을 이별의 상황과 애달픔을 전달하기 효과적인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한 것임을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통해 깨닫는 것이다. 기준 2와 관련된 학습 활동은 여성 화자의 역할을 작자의 효과적인 충심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기준 3과 관련된 학습 활동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5> 여성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는 활동

출판사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작자의 의도와 효과를 묻는 학습 활동
천재교육(정)	▷ 3. (가)는 고려 속요이고, (나)는 현대 시이다.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1) '속미인곡'의 시적 화자와 (가), (나)의 시적 화자를 비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 작품의 공통된 정서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지학사	▷ 1.속미인곡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2)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의 첫 번째 말의 처음과 끝 어절을 쓰고, 그 부분의 첫 문장에는 어떤 심정이 담겨 있을지 생각해 보자.
비상교과서	▷ 2.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살펴보자. (2)두 화자의 애정관이 담긴 시어를 찾고, '임'에 대한 '을'의 태도를 '갑'과 비교하여 말해 보자.
비상교육	▷ 2.이 작품에서 '낙월'과 '구ㅈ ᆞ ᆫ비'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갑녀'와 '을녀'의 태도를 파악해 보자.

상문연구사	▷ 2.이 작품에서 화자가 '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구체적인 구절을 찾아 설명해 보자. 4.이 작품과 다음 작품의 화자가 이별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 보자.

<속미인곡>에서 드러난 여성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는 학습 활동은 작품의 화자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천재교육(정), 지학사, 비상교과서, 비상교육, 상문연구사에 실려 있다. 천재교육(정)에서 고려속요인 '정서의 정과정'과 현대시 '한용운의 해당화'의 시적 화자를 <속미인곡>의 시적 화자와 비교해 보고 공통된 정서를 찾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천재교육(정)과 마찬가지로 지학사에서도 고려 속요인 '정서의 정과정'과 <속미인곡>을 읽고 두 작품에서 임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는 학습 활동을 설정하고 있다. 비상교과서는 여성 화자의 이별의 정한에 중심을 두어 시어를 통해 여성 화자의 태도를 짐작하게 하거나 <속미인곡>의 서술 방식이나 주제와 맥을 같이 하는 작품을 학습자에게 조사하여 발표하게 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낙월'과 '구ㅈ、ㄴ비'를 통해 알 수 있는 갑녀와 을녀의 태도를 파악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고, 상문연구사는 구체적인 구절을 학습자가 찾도록 하여 화자가 임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기준 3과 관련된 학습 활동은 기준 2와 관련된 학습 활동과 마찬가지로 여성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고 임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태도를 충성스러운 신하와 임금의 관계로 확장하여 학습자가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는 학습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여성 화자를 고찰하기보다는 충신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여성이 하소연 하는 방식을 내세운 것을 인식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 기준 4와 관련된 학습 활동 양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6>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을 잇는 특징과 관련된 활동

출판사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을 잇는 특징과 관련된 학습 활동
천재교육(김)	▷ 4.이 작품이 여성을 화자로 한 '충신연주지사'라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2)이 작품이 남성 신하가 임금에게 직접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 느낌과 효과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말해 보자.
창비	▷ 4. 다음 글을 참고하여 당시에 작가의 "ᄆᆞᄋᆞᆷ의 머근 말ᄉᆞᆷ"은 어떤 내용이었을지 생각해 보자.
지학사	▷ 3.다음은 고려 의종 때의 문인 정서가 귀양지에서 임금을 생각하며 지은 고려 가요이다. '속미인곡'과 비교하여 읽고, 두 작품에서 '님'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 보자.
비상교과서	▷ 5.다음 시조를 감상하고,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해 생각해 보자. (2)'속미인곡'과 위 시조에 담긴 가치관을 비교해 보고, 두 작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말해 보자.
비상교육	▷ 3.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 작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의 창작 의도를 살펴보자. (1)'을녀'와 '임'이 비유하는 대상이 각각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할 의도를 말해 보자.
두산동아	▷ 3.다음은 조선 전기의 사대부인 이개가 쓴 시조이다. '속미인곡'과 비교하여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1) '촛불'이라는 소재를 통해 시적 화자가 표현하고자 한 바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2)주제 면에서 위 시조와 '속미인곡'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이 공통점이 우리 문학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을 잇는 <속미인곡>의 특징과 관련된 학습 활동은 천재교육(김), 창비, 지학사, 비상교과서, 비상교육, 두산동아에 실려 있다. <속미인곡>이 수록된 교과서 중에서 상문연구사, 천재교육(정)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2종을 제외하고 학습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속미인곡>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작자의 의도와 효과를 묻는 학습 활동'과 마찬가지로 '두 여인 (갑녀와 을녀)의 대화 구분 활동을 통한 역할 정리 학습 활동' 다음으로 총 6종의 교과서에 모두 실려 있다.

천재교육(김)은 <속미인곡>이 여성을 화자로 설정한 충신연주지사임을 밝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여성 화자를 내세워 토로하는 방식을 우리 문학의 전통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창비는 학습 활동의 "한 걸음 더"에서 "속미인곡은 임금에 대한 충정을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에 빗대어 노래한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이다."[48]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상교과서는 박인로의 시조인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와 <속미인곡>에 담긴 가치관을 비교해보는 학습 활동 을 설정하고 있다. <속미인곡>은 임금에 대한 연모와 충정의 마음을 유추하고, 박인로의 시조인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孝)를 유추하여 충과 효를 당시의 보편적인 가치로 보고 있다. 비상교육은 학습 활동의 "지식창고"에서 "임금을 향한 신하의 충정과 절개를 담아 부른 노래를 연군가(戀君歌) 또는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라고 한다."[49]라고 설명하고 있다. 두산동아는 조선 전기 사대부인 '이개'가 쓴 시조 '방(房)안에 혓는 촛(燭)불눌과~' 주제면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개의 시조와 <속미인곡>은 표면적으로 임과 이별한 정을 다루고 있지만, 이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충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48) 박종호 외, 『고등학교 문학』, 창비, 2014, 183면.
49)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014, 183면.

기준 4와 관련된 학습 활동은 기준 2와 기준 3과 관련된 학습 활동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여성 화자를 이용한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을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속미인곡>이 여성 화자를 내세워 충신연주지사의 맥을 잇는 작품임을 학습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활동은 기준 2, 3, 4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의 구성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3. <속미인곡> 학습 활동 양상의 문제점

<속미인곡>이 수록된 8종 교과서의 학습 활동 내용 분석 결과 중에서 여성 화자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1~4의 학습 활동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문학 교과서를 나누어 표로 정리하였다. 5~7의 학습 활동은 1~4의 학습 활동보다 화자와 관련이 적다고 판단되어 다음의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천재교육(김), 천재교육(정), 창비, 지학사, 비상교과서, 비상교육, 두산동아, 상문연구사 등의 <속미인곡>이 수록된 8종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학습 활동의 양상이 드러났다.

다음은 앞에서 제시된 기준 1~4의 학습 활동 양상을 분석한 표이다.

<표-7> 2011 개정 문학 교과서 <속미인곡> 학습 활동 양상

내용 / 문학교과서	대화구분을 통한 역할 정리	여성 화자로 설정한 작가의 의도	여성 화자의 정서와 태도	충신연주지사의 전통
천재교육(김)	○	○		○
천재교육(정)	○	○	○	
창비	○			○
지학사	○		○	○
비상교과서	○	○	○	○
비상교육	○	○	○	○
두산동아	○	○		○
상문연구사	○	○	○	

위의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속미인곡>이 수록된 2011 개정 문학 교과서의 학습 활동 중에서 '두 여인의 대화 구분 활동을 통한 역할 정리 학습 활동'이 모든 교과서에 빠짐없이 실려 있어 가장 많은 학습 활동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문학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학습 활동은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을 잇는 <속미인곡>의 특징과 관련된 학습 활동'과 '<속미인곡>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작자의 의도와 효과를 묻는 역할 정리 학습 활동'으로 6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학습 활동은 크게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는 '내용 이해'와 성취기준과 직결되는 '목표 학습'으로 나누어진다. 이를테면 '내용 이해'

에 해당하는 '두 여인의 대화 구분 활동을 통한 역할 정리 학습 활동'은 <속미인곡>이 수록 되어 있는 교과서에 모두 나타나는 공통적인 학습 활동이다. 따라서 <속미인곡>의 학습 활동은 성취기준이 다른 교과서라고 하더라도 학습 활동 양상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속미인곡>의 '내용 이해'과 관련된 학습 활동이 공통되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습 활동 분석 결과 유사한 학습 활동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착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와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설정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구성해 볼 것이다.

또한 <속미인곡>의 학습 활동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여성 화자를 작자가 임금을 향한 충정을 드러내고 학습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설정한 효과'로만 보고 학습자에게 교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교육 현장에서 '여성 화자'의 한정된 의미만이 부각되어 학습자에게 일정한 틀 안에 교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목소리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은 오랜 세월 축적된 한국 문학적 전통일 것이다. 특히 <속미인곡>은 한국 문학의 흐름 속에서 남성 작자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임금을 향한 충성을 남녀의 사랑으로 치환하여 표현한 작품들 중 충신연주지사의 틀을 마련한 작품이다. 작품의 서술방식이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점은 단순히 일방적 교시 문학으로 여겨지던 가사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50]

실제로 <속미인곡>의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대부분 복수 화자의 대화체나 충신연주지사에 맞춰져 있고, 고전시가에서 '여성 화자'의 흐름은 짚어주지 않고 있다. 또한 작자인 정철의 의도만 묻고 있을 뿐, 작가 정철의 시

50) 서영숙, 『조선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 역락, 2003, 35면.

각에서 그려낸 여성 화자의 양상을 학습자가 면밀히 고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습 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그동안 상당 부분 축적된 <속미인곡>의 연구가 대화체나 충신연주지사의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을 반영한 것임을 반증한다.

그러나 <속미인곡>은 '대화체' 가사이기도 하지만 여성 화자라는 고전시가의 전통적 흐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작품이다. 여성 화자를 내세워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을 이은 작품이기 이전에 남성 작자에 의해서 이별과 그리움 애절한 사랑의 상황에 놓인 타자화된 여성의 양상이 시적 화자의 어조와 태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속미인곡> 교육에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효과로 쓴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적 흐름을 잇고 있다는 사실만큼 주목되어야 할 점은 '여성 화자'의 흐름 선상에서 작자에 의해 전통적으로 타자화 되어온 여성의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속미인곡>이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의 결과는 대부분 충신연주지사로 귀결된다. 물론 충신연주지사로서 <속미인곡>이 지니는 가치는 학습자에게 분명 교육되어야 할 내용이지만 학습자에게 충신연주지사로만 교육되는 편협성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교사는 단순히 신하의 충심을 전하기 위한 표현 수단으로써 여성 화자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여상 화자의 양상을 면밀히 고찰하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양상과 작품분석

1. <속미인곡>의 문학적 표상: 지고지순한 여성상

고전시가에서 지고지순한 여성상은 상층계층에 속하는 사대부가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정을 임과 사랑에 빠진 여성으로 표현한 하나의 문학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임금을 향한 군신의 충정을 나타내는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고지순한 여성상은 여성 화자에게 절대적 존재인 '임'과 약자에 속하는 사대부 남성의 군신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상은 <속미인곡>에서 '을'녀의 정서와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

<속미인곡>에서 지고지순한 여성상이 표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茅簷 ᄎᆞ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半壁 靑燈은 눌위ᄒᆞ야 불갓ᄂᆞᆫ고
오ᄅᆞ며 ᄂᆞ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져근덧 力盡ᄒᆞ야 픗잠을 잠간 드니
精誠이 지극ᄒᆞ야 ᄭᅮᆷ의 님을보니
玉ᄀᆞᄐᆞᆫ 얼구리 半이나마 늘거세라
ᄆᆞᄋᆞᆷ의 머근말ᄉᆞᆷ 슬ᄏᆞ장 ᄉᆞᆲ쟈ᄒᆞ니
눈믈이 바라나니 말ᄉᆞᆷ인들 어이ᄒᆞ며
情을 못다ᄒᆞ야 목이조차 몌여ᄒᆞ니
오뎐된 鷄聲의 ᄌᆞᆷ은엇디 ᄭᆡ돗던고
어와 虛事로다 이님이 어ᄃᆡ간고 51)

‘을’녀는 현실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임과의 사랑을 ‘꿈’에 의해서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다. 화자에게 절대적인 존재인 임과의 합일을 꿈에서나마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고 만다. ‘을’녀가 꿈속에서 본 임의 얼굴은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옥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어 보일 정도로 상해 있다. 여기서 임은 여성 화자인 ‘을’녀를 지고지순한 여성상으로 만드는 존재이다. 바로 이런 절대적 존재에 대한 여성 화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신하의 임금을 향한 충정에 비견할 만한 마음일 것이다.

지고지순한 여성 화자의 양상은 <속미인곡>이 실려 있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서 작자 정철의 작품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하나의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대부 남성의 보편적인 감정인 ‘임을 향한 충정’을 이별의 상황에서 여성 화자를 내세워 ‘임을 향한 사랑’이라는 개인의 정서로 표현한 방법이 현재 국어교육에서 강조하는 <속미인곡>의 전통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고지순한 여성상은 연군가의 원류로 꼽히는 <정과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더욱 상세히 드러난다. 국어교육에서 <정과정>은 학습자에게 고려 의종 때 동래로 유배된 정서가 지어 부른 고려 속요로 교육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여성 화자를 통해 군신의 관계를 남녀의 연인 관계로 치환하여 표현한 방식”[52]이 <속미인곡>에 영향을 주었다고 학습자에게 가르치도록 강조되고 있다.

<정과정>은 표면적으로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여성 화자의 어조로 형상화하였고, 이면적으로 임금을 향한 충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속미인곡>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정과정>

51) 최강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③ 가사 I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310면.
52)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지도서, 비상교육, 2014, 183면.

이 학습 활동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은 천재교육(김), 창비, 비상교과서, 비상교육, 두산동아 등의 문학 교과서에서도 <정과정>과 <속미인곡>의 충신연군지사로서 문학적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다.

본격적으로 <정과정>과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의 의미 양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내 님믈 그리ㅿ、와 우니다니
山(산) 졉동새 난 이슷ㅎ、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ᄃ、ᄅ 아으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ᄅ、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ㅎ、ᄂᆞᄃᆡ 녀져라 아으
벼기시더시 뉘러시니잇가.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ㅁ、ᄅ힛 마리신뎌
ㅅ、ᄅ읏븐뎌 아으
니미 나ᄅ、ᄅ ㅎ、마 나ᄌ、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53]

<정과정>의 화자는 3·5·9행의 말미에 '아으'라는 감탄구와 임을 향한 잦은 감정 분출로 인해 '여성'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렇지만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ᄅ、시리이다', '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와 같은 행은 그 내용에 있어서 작자인 정서가 직접 청자인 임금에게 말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즉, <정과정>의 시적 화자는 <속미인곡>에 등장하는 여성 화자에 비해 여성적 성격이 적고 남성 화자

53) 성현・염정권, 『악학궤범』, 한국문화사, 1996, 331면. (『악학궤범』 제 5권의 〈학연화대처용무합설 鶴蓮化臺處容舞合說〉 조의 삼진작(三眞勺) 가사 참고.)

로 여겨도 무방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임과 이별한 원인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지고지순한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에 비해 <정과정>의 여성 화자는 임금에게 따지듯이 격정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임금에게 충성해야 할 수직 관계에 놓여있는 신하가 울부짖으며 자신의 무고함을 노래한 작품이 <속미인곡>과 함께 충신연주지사로 연군가의 원류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시대의 속가 중 대부분이 남녀상열지사라 하여 배척되었지만 <정과정>은 예외적으로 예악(禮樂)의 가사로 중요시 되었다. <정과정>은 군왕의 성덕과 만수무강을 비는 봉황음과 북전 사이에 실려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에서 당시 향유 계층이 <정과정>을 충신연주지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4)

또한, 임금의 성덕을 찬양하는 자리에 잘못으로 유배를 떠난 정서가 지은 <정과정>이 충신연주지사로 인식된 또 하나의 이유는 상층귀족계층이라는 작자 정서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이다.55) <정과정>은 창작 계층이 상층귀족이라는 점과 작자가 유배를 떠나 창작 되었다는 배경이 <속미인곡>과 유사하다. <속미인곡>은 조선 선조 때, 문인 정철이 유배나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지은 작품이고, <정과정>은 고려 의종 때, 문인 정서가 유배를 떠나 지은 작품이다. 이러한 창작 계층과 배경의 유사점 때문에 <속미인

54) 성종조의 궁중악장 개편 작업의 결과로 성종 24년(서기1493년)에 완성된 것이 악학궤범이다. 정과정은 봉황음과 북전 등과 함께 삼진작이라는 악곡의 가사로 실려 있다. 둘 다 군왕의 성덕과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두 노래 사이에 <정과정>이 끼여있다. (정경주, 「鄭敍의 生涯와 忠臣戀主之詞로서의 <鄭瓜亭>」,『동양한문학연구』제8집, 동양한문학회(구 부산한문학회), 1994, 271면 참고.)

55)鄭瓜亭內侍郎中鄭敍所作也敍自號瓜亭聯昏外戚有寵於仁宗 及毅宗卽位放歸其鄕東萊曰今日之行迫於朝議也不久當召還 敍在東萊日久召命不至乃撫琴而歌之詞極悽惋李齊賢作詩解之曰憶君無日不霑衣政似春山蜀子規爲是爲非人莫問只應殘月曉星知. <고려사> 제71권 지제 25 악2, 속악.

곡>과 <정과정>이 여성 화자의 양상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을 같은 충신연주지사로 귀속시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교육되어 왔다.

<정과정>은 <속미인곡>과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내세운 표현과 충신연주지사라는 주제에서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에 연군가의 원류로 주목되어 왔다. 현재 학교 교육은 두 작품에 드러난 여성 화자의 목소리 양상을 모두 임금을 향한 충성심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작품에 표현된 여성 화자의 양상에 주목하여 작품을 살펴본다면, 여성 화자를 향한 시선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유배 가사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만분가>에서도 드러난다. <만분가>의 시적 화자 역시 <속미인곡>처럼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지만 <정과정>과 같이 화자를 상층귀족계층으로 보아도 상관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 테면, “초수 남관이 고금에 한 둘이며”, “백발황상이 서러운 일도 많고 많다”[56]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여성 화자로 보기 힘든 점이 발견된다. 초수 남관은 죄수로 초나라 사람인 種儀가 남관(초나라의 관)을 쓰고 갇힌 옛일에서 죄수의 뜻으로 쓰였고, 백발황상은 늙은 신하를 의미한다. 이 부분의 내용은 <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작자 조위가 청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발화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다가 정철의 <속미인곡>에 이르러 여성 화자 목소리는 남성 작자로 대체하여 해석될 가능성이 사라지고, 완전한 여성으로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연정시의 여성 화자로 드러났다. <속미인곡>은 <사미인곡>의 미흡한 점을 다시 보완하여 그 속편으로 지은 연군지사로, <사미인곡>의 화려한 문체와 자기과시적인 사랑이[57] <속미인곡>에 와서는 소박한 문체와 성

56) 최강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③ 가사 I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97면.
57) 몸단장, 바느질, 규방의 치장과 관련된 어휘가 빈번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한자어 및 한문표현이 주조를 이룸으로써 이 텍스트의 언어가 여성의

숙된 사랑으로 승화되어 나타난다.[58]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정과정>과 <만분가>와 달리, 남성 작자가 철저히 여성 화자를 내세워 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속미인곡>의 지고지순한 여성상은 충신연주지사로 일컬어지는 <정과정>과 <만분가>, <사미인곡>과 달리 여성 화자가 완전한 여성으로 지고지순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문학의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은 여성 화자의 양상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속미인곡>을 국어교육에서 지고지순한 여성상의 충신연주지사로만 한정하여 보는 일은 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화자에 대한 학습자의 확장된 이해를 가로막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여성 화자'를 그저 공감을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의 양상이 그 시대의 남성 작자에 의해 타자화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주목하여 작품에 드러난 여성 화자의 양상을 학습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언어가 아니라 남성의 언어임을 짐작하게 한다. '여성에 빗대어 말하기' 방식이다. (박혜숙, 「고려속요와 여성 화자」, 『고전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20면 참고.)

58) 최혜진, 『한국고전시가의 이념과 지향』, 월인, 2003, 208면.

2. <속미인곡>의 문화적 표상: 타자화된 여성상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를 논하기 전에 기존의 여성 화자와 관련된 개념적 정의를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기존의 여성 화자 논의가 고전 시가에서 이루어져온 방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여성 화자를 국어교육에 적용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국어교육의 과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속미인곡>의 두 가지 여성 화자 양상에 의한 작품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이 지니는 근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시에서 여성적 발화는 한과 애원, 호소, 부드러움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여성적 감정으로 규정되었다. 사랑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대부에게 여성 화자의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여성 화자를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사대부 남성 작자의 현실적 공간과 초월적 공간을 통합하여 보여주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견해도 있었다.[59]

사대부의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표현의 한 방편으로 여성 화자를 바라보았던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연구는 점차 사대부 남성 작자에 의해 타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여성 화자를 규명하려는 연구로 진전되었다. 이와 관련된 여성 화자의 타자성은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저서인 『제2의 성』에서 언급된 '타자로 인식된 여성'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논의되었다. 보부아르는 사회에서 남성이 주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남성에 의해 타자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60]

---

59) 조세형, 앞의 논문, 176면.

60)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제2의 성』에서 여성들에 대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여자의 정체성'이다. 둘

보부아르가 주장했던 타자로서 인식된 여성을 토대로 고전시가에서 타자로 표출된 여성 화자 관한 연구는 박혜숙의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타자로 인식된 여성에 관한 논의가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여성 화자와 관련된 연구를 기반으로 <속미인곡>의 타자화된 여성 화자의 양상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시인과 구별되는 화자를 가리키는 가면으로 번역되는 퍼소나(persona)는 문학용어인 동시에 인간이 세상에 내보이는 외적 인격 또는 사회적 자아라는 의미의 심리학적·사회학적 용어다.[61] <속미인곡>의 퍼소나라고 할 수 있는 여성 화자는 임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라는 제한된 감정 표현만 가능한 존재로 그 시대가 추구하는 여성성과 남성 작자에 의해 남성 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부여된 상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주로 사대부로 이루어진 당대 남성 시인들의 여성관을 반영하고 있는 대상으로 '여성'이라는 타자성과 '화자'라는 가면이 복합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62] 학교 교육에서 충신연주지사의 표현

째, 남자=주체 여자=타자라는 등식이 대체 어디서 연유했는가. 셋째, 남녀 사이의 불평등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넷째, 여성 해방의 탈출구를 찾는 문제이다. (변광배·보부아르, 『e시대의 절대사상 제2의 성 여성학 백과사전』, 살림, 2007, 120~124면 참고.)

61) 김준오, 『가면의 해석학』, 이우, 1987, 53면.

62) 조선조 건국 이후 여성의 종속성이 강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 원리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여말부터 개별 사대부 문사들의 문집에 나타난 절부·열부전, 『삼강행실도』·『고려사』 열전·『신중동국여지승람』 등의 열녀편 설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바, 이들은 대부분 15·16세기에 집중적으로 저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이고 구체화된 의도를 보여주는 서사 작품이나 가사뿐만 아니라 함축적인 시인의 뜻을 내포하는 아름다운 시들도 남성 작가 자신들이 의식했던 그렇지 않았던 여성의 종속성을 고착화시키는데 일조했음은 간과할 수 없다. (이혜순, 「15·16세기 한국 여성 화자 시가의 의의」, 『韓國文化』 제19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6, 68면.; 권정은, 「여성 화자 가사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 16면 참고.)

수단으로서 학습자에게 교육되고 있는 여성 화자 자체가 바로 남성 작자의 시각에 의해 구현된 여성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속미인곡>처럼 작자가 밝혀진 작품들은 '충신연주지사'로 유형화되어 학습자에게 교육되고 있다.

집단적 문학에서 점차 개인의 서정을 표출하게 된 문학사적 흐름 속에서 여성은 점차 집단에 일부분이 아닌 타자에 의해 형상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상층 남성 작자가 창작한 연군지정의 주제를 다룬 작품에서 착안할 수 있다. <정과정>과 <사미인곡>으로 대표되는 연군의 노래는 그 화자가 여성임에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서 시적 화자가 이별, 홀로 있음, 기다림, 피동적이라는 문화적 여성성 이외에는 별다른 여성적 징표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봉건적 질서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신하의 위치란 피동적일 수밖에 없음이 매우 당연하고 그러한 태도가 문화적 표상으로 자리 잡은 여성으로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다시 말해, <정과정>과 <속미인곡>의 작자인 정서와 정철은 자신들의 임금을 향한 충정을 구체적 상황으로 드러내기 위해 특별한 시적 화자를 설정했기보다는 문화적으로 통용되던 여성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혹은, 이들이 화자의 문제를 중요한 시적 고안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채택한 것은 문화적 표상으로 자리 잡은 여성성에 의지하는 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63]

시적 화자를 설정하는 것은 작자가 수용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역시 그 시대의 수용자의 의식이 투영된 화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 화자는 상층 남성 작자를 포함한 작품의 수용자들 의해서 상징화 되어 작품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을

63) 김대행, 앞의 책, 15면.

것이다. 그리고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실재하는 여성상이 아니라 정철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상으로 실재하지 않는 여성상이다. 그러므로 여성 화자의 의미해석이 충신연주지사에 그치지 않고 타자화된 양상까지 이르렀을 때 학습자가 고전시가사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남성 작자와 작품의 수용자들이 부여한 타자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학교 수업에서는 작자 정철의 창작 의도와 여성 화자의 표현 기법의 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학습자에게 교육되고 있다. 국어교육에서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의 하나로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충신연주지사를 노래한 표현 방법에 그 의의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단선적인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교육은 학습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부족하다.

인문교육의 하나로서 고전시가 교육은 결국 나와 내가 사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덧보태 주어 삶의 총체를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과거의 시선이 투영된 시적 화자는 현재의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 의해 재구성된다.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교육은 학습자를 <속미인곡>이 창작된 시대와 통시적·공시적으로 공감하도록 하고, 학습자에게 현재의 삶에서 여성 화자의 의미를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3. <속미인곡>의 교육 내용: 두 가지 여성 화자 양상에 의한 작품분석

지고지순한 여성상은 충정으로 치환되는 사랑을 지닌 여성 화자이고, 타자화된 여성상이란 그 당시 사대부 남성 작자에 의해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으로 규정된 여성 화자이다. 지고지순한 여성상은 충신연주지사의 표현의 수단이라는 문학적 특성을 지니고 타자화된 여성상은 남성 작자와 수용자의 시선이 함축된 문화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고전시가 문학에서 여성 화자는 사대부 남성의 자격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 속 욕망을 사랑과 이별의 관계 속에 녹여서 표현한 수단이었다. 또한 여성 화자는 철저히 남성 작자와 작품을 읽는 수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타자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 화자의 두 가지 양상을 토대로 <속미인곡>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 시가문학은 곧 '임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임'에는 전통성과 보편성이 있다.[64] '임'이라는 존재가 주는 전통성과 보편성을 기반으로 시가문학에서 '임'은 여성 화자가 사모하는 대상으로 도식화되어 학습자에게 교육되어 왔다. '임'이 등장하는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역시 이러한 도식에 편중되어 타자화된 여성상은 제대로 고찰되지 못하고 충신연주지사의 면모를 드러내는 지고지순한 여성상만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뎨가는 뎌각시 본듯도 ᄒᆞᆫ뎌이고
天上 白玉京을 엇디ᄒᆞ야 離別ᄒᆞ고
힉다뎌 져믄날의 눌을보라 가시는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ᄉᆞ셜 드러보오
내얼굴 이거동이 님괴얌즉 ᄒᆞᆫ가마는

64) 최혜진, 앞의 책, 297면.

엇딘디 날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시
나도 님을미더 군쁘디 젼혀업서
이릭야 교틱야 어즈러이 ᄒᆞ돗쩐디
반기시는 ᄂᆞᆺ비치 네와엇디 다ᄅᆞ신고
누어 싱각ᄒᆞ고 니러안자 혜여ᄒᆞ니
내몸의 지은죄 뫼ᄀᆞ티 빠혀시니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
셜워 플텨헤니 造物의 타시로다[65]

위의 내용은 <속미인곡>에서 임을 향한 여성 화자의 지고지순한 태도와 함께 남성 작자가 여성 화자를 생각하는 양상 즉, '타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내얼굴 이거동이 님괴얌즉 ᄒᆞᆫ가마는'의 부분에서 내 모습과 이 태도가 임이 나를 사랑함직 하다는 여성의 오만한 태도가 드러난다. 이를 믿고 이러한 태도가 이어져 '이릭야 교틱야 어즈러이 ᄒᆞ돗쩐디' 와 같이 아양 부리며 지나치게 굴어서 임이 나를 반기는 얼굴이 이전과 다르다고 서술하고 있다. 임이 여성 화자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임의 단순 변심이 아닌 여성 화자의 지나친 아양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화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기에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사람을 탓할 수도 없다. 임이 나(여성 화자)를 떠난 사유를 운명적으로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버림받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이유를 임의 변심이나 배신이 아닌 자신의 잘못과 운명의 탓으로 여긴다. 그리고 임과 헤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자신이 아양을 부렸던 행동에 때문인 것으로 여기고 조물주의 탓이라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여성 화자는 자신의 운명이 어차피 임에게 버림받을 운명이었다는 합리화를 통해 임에게는 전

65) 최강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③ 가사 I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306~308면.

혀 아무 잘못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임에 의해 버려진 자신의 존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여성 화자의 태도에서 '주체인 임에 의해 규정된 자신'[66]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타자성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주체가 되지 못한 여성 화자의 타자성이 바로 여성 화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이 때, 드러나는 여성 화자는 남성 작자에 의해서 임에게 의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글란 싱각마오 ᄆᆡ친일이 이셔이다
님을 뫼셔이셔 님의일을 내알거니
ᄆᆞᆯᄀᆞᄐᆞᆫ 얼굴이 편ᄒᆞ실적 몃날일고
春寒 苦熱은 엇디ᄒᆞ야 디내시며
秋日 冬天은 뉘랴셔 뫼셨ᄂᆞᆫ고
粥早飯 朝夕뫼 네와ᄀᆞᆺ티 셰시ᄂᆞᆫ가
기나긴 밤의 ᄌᆞᆷ은엇디 자시ᄂᆞᆫ고[67]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여성 화자는 이른 봄날의 추위와 여름철 무더위, 가을과 겨울까지 사계절 겪을 연약한 몸의 임을 걱정하고 있다. 여성 화자의 임을 향한 염려는 임이 존재해야만 주체성을 지니는 '여성 화자' 스스로의 안위에 관한 걱정이기도 하다.

---

66) <속미인곡>에서 주체는 '임'이고 여성 화자는 주체가 아닌 타자로 존재하고 있다. '주체인 임에 의해 규정된 자신'이란 주체인 '임'의 입장에서 완전한 타자로 존재하는 여성 화자를 의미한다.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자신을 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임에 의해 존재하는 즉, 다른 사람에 의해 대상화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다. (박혜숙, 「고려속요와 여성 화자」, 『고전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12~23면 참고.)

67) 최강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③ 가사 I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308면.

구롬은 ᄏᆞ니와 안개는 므ᄉᆞ일고
山川이 어둡거니 日月을 엇디보며
咫尺을 모ᄅᆞ거든 千里를 ᄇᆞ라보랴
출하리 믈ᄀᆞ의가 비길히나 보랴ᄒᆞ니
ᄇᆞ람이야 믈결이야 어둥정 된뎌이고
샤공은 어디가고 ᄇᆡᆫ비만 걸렷ᄂᆞᆫ고
江天의 혼자셔셔 디ᄂᆞᆫ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消息이 더옥 아득ᄒᆞᆫ뎌이고[68]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가 끼여 산천이 어두워 해와 달을 보기가 힘들다. 여성 화자는 임과 천 리나 되는 먼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여성 화자는 임을 향한 원망어린 어조도 아닌 그저 상황적 제한만을 담담하게 읊을 뿐이다.

이러한 여성 화자의 태도는 국어교육에서 같은 충신연주지사 계열로 자주 언급되는 <정과정>의 여성 화자의 태도와 비교된다. <정과정>의 여성 화자는 감탄사 '아으'를 연발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모르는 임을 향해 감정의 분출을 멈추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죄가 없음을 잔월효성도 알고 있는데 왜 임은 모르냐며 원망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원망 없이 자신이 임에게 갈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답답해한다. 그리고 임금이 자신의 무고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안개와 구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여성 화자와 임과의 이별은 자신과 임의 탓이 아닌 임의 눈을 가린 신하들의 탓임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정과정>의 여성 화자와 다르게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소극적으로 임과 이별하여 소외된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임을 향한 그립고 애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임을 향한 사랑은

68) 최강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③ 가사 I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308~310면.

극단적으로 여성 화자의 사물화를 통해 구체화된다.

어와 虛事로다 이님이 어디간고
결의 니러안자 窓을열고 ᄇᆞ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조출 ᄲᅮᆫ이로다
출하리 ᄉᆡ여디여 落月이나 되야이셔
님겨신 窓안희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ᄃᆞᆯ이야 ᄏᆞ니와 구존비나 되쇼셔[69]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여성 화자 '을'녀에게 '갑'녀가 구ᄌᆞ ᄂᆞᆫ비나 되라고 하는 충고하고 있다. 작품에서 구ᄌᆞ ᄂᆞᆫ비는 낙월보다 적극적인 여성 화자의 태도로 형상화 되었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학습자에게 교육되고 있다. 그러나 구ᄌᆞ ᄂᆞᆫ비는 임에게 직접 닿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구ᄌᆞ ᄂᆞᆫ비가 되어 임을 만날 수는 있어도 임의 곁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無의 존재로 전락한다.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어조나 태도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임과 이별의 상황에 놓인 여성 화자는 임을 그리워 할 수는 있으나 원망 할 수는 없고 임을 끝없이 기다리는 존재이다.

작자인 정철은 타의에 의해 관직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를 '임'과의 관계에서 주체적가 되지 못하고 타자화된 존재로 설정하여 임을 향한 그리움을 토로하였다. 끝도 없는 기다림만이 여성 화자에게 허락될 뿐이다. 주체적으로 임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꿈에서 볼 뿐이다. 그에 반하여 <정과정>의 여성 화자는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군왕의 뉘우침까지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70] 만약 <정과정>이

69) 최강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③ 가사 I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310면.
70) 성낙희·조연숙, 『고전시가의 이해』, 새미, 2006, 15면.

만들어진 시대와 작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원가>와 함께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임을 원망하는 내용에 국한되었을 것이다.

고전시가에서 여성 화자는 공시적·통시적으로 연결된 타자이다. 임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주체성을 가질 수 없었고 작자와 수용자의 이중적 시선이 투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성 화자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편중된 교육에서 벗어나 사고를 확장하여 당시 여성상에 공감하고, 여성 화자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Ⅳ. 여성 화자 교육을 통한 <속미인곡>의 수업 지도의 실제

문학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문학의 감상력과 상상력 증진을 뛰어 넘어서, '삶의 총체적 경험'과 '문학적 문화의 고양'을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전시가 역시 문학이므로 교육에서 이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71] 고전시가 교육에서 학습자가 시적 화자와의 공감하여 시적 화자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시적 화자의 양상을 둘러싼 장막을 깨달을 수 있다면 현재를 사는 학습자의 삶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학 교육과정의 실제를 구안하는 데는 문학교육의 실제적인 지식 및 경험 내용과 학교라는 교육 공간의 실제적 장이 전제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성을 띤다.[72]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여성 화자의 내용들을 토대로 <속미인곡>의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속미인곡>의 수업 시수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2차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하는 교수·학습 방안의 1차시에서는 기존의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관련하여 충신연주지사 속 지고지순한 여성의 양상을 교육하도록 계획할 것이다. 그리고 2차시에서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타자화된 여성 화자의 양상에 집중하여 교사가 학습자에게 그러한 양상을 파악하도록 지도하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

71) 구인환 외, 앞의 책, 58~79면.
72) 구인환 외, 앞의 책, 176면.

1. 여성 화자 교육을 통한 <속미인곡>의 수업 절차 모형

교사는 학생의 지적권위자가 아닌, 조력자이자 동료로서 학습자가 작품을 주체적으로 읽고 감상하며 삶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73]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감상 능력은 포용하고 바람직한 해석으로 이끌어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을 기저로 하여 수업을 계획하여 보도록 하겠다.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는 경규진(1993)에 의해 국내에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는 로젠블렛의 상호교통이론[74]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 반응 중심 접근법의 수업 원리를 고찰하고 실제 교육을 통해 재생산 될 수 있도록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과 모형을 구안하였다.[75]

다음은 경규진이 구안한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이다.

<표-8>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76]

1단계 :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 → 반응의 형성 (1) 작품 읽기 · 심미적 독서 자세의 격려 · 텍스트와의 거래 촉진

73) 류형엽, 「학습자 반응 중심의 문학 복합 교수·학습 모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면.

74) 로젠블렛은 '텍스트'는 독자들과의 거래(상호교통) 덕택에 다른 언어적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작품'은 독자가 텍스트와의 거래로부터 끌어내는 것으로 정의하여 이 '상징'을 의미로 변이시키는 행위를 독자와 텍스트와의 상호교통, 즉 '거래'라고 정의하였다. (류형엽, 앞의 논문, 16면 참고.)

75) 류형엽, 앞의 논문, 5~6면.

76) 경규진, 「반응중심 문학교육의 방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5면.

2단계 :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 반응의 명료화 (1) 반응의 기록 · 짝과 반응의 교환 (2) 반응에 대한 질문 · 반응을 명료히 하기 위한 탐사질문 · 거래를 입증하는 질문 · 반응의 반성적 질문 · 반응의 오류에 대한 질문 (3) 반응에 대한 토의 (또는 역할놀이) · 짝과의 의견 교환 · 소그룹 토의 · 전체토의 (4) 반응의 반성적 쓰기 · 반응의 자유쓰기 (또는 단서를 놓은 쓰기) · 자발적인 발표
3단계 :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 → 반응의 심화 (1) 두 작품의 연결 (2) 텍스트 상호성의 확대 * 태도 측정

위의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은 '반응의 형성', '반응의 명료화', '반응의 심화', '반응의 일반화'의 학습 단계로 이루어진다.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의 특징은 다른 국어교육 모형과는 다르게 작품의 주석에 대한 해석에 치중되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잃게 하는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반응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서 학생들 각자의 반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작품에 대한 '해석의 무정부 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데 작품 해석에서 작자나 텍스트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77] 따라서

77) 류형엽, 앞의 논문, 24면.

이 논문에서는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을 근간으로 하되 '반응의 심화' 단계에서 개념 학습 모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속미인곡>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념 학습 모형은 국어 지식 영역의 학습이 국어사용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서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후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언어와 국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개념 학습을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삼는다.[78] 또한, 학생들이 어떤 개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그 개념의 특성들을 내포한 예들과 그러한 속성들이 포함되지 않은 예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도록 하여 어떤 개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79]

그러므로 개념 학습 모형을 다른 작품과 관련지어 텍스트의 확산적 통찰을 이끌어내는 '반응의 심화' 단계에 결합시켜 적용한다면 작품의 구조적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텍스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80]

다음으로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을 기저로 하여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를 활용한 수업의 각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계획 단계

계획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수업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국어과 교수·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변인을 분석한 후, 교수·학습할 내용을 상세화한다.[81] 이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변인을 고려하여 교수자, 학습자, 교수·학습 환경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78) 김일병, 『국어과 교수·학습의 실제』, 박이정, 2005, 191면.
79) 구인환 외,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 284면.
80) 류형엽, 앞의 논문, 43면.
81) 최지현 외, 앞의 책, 69면.

다. 그리고 학습자가 배우게 될 단원과 함께 그 단원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검토하고, 교과서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작자 정철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단서로 작용하면서도 남성 작자와 작품의 수용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여성 화자를 내세워 임(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한국 문학의 특질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여성 화자의 양상을 파악하여, 여성 화자의 '문학적 표상성'과 '문화적 표상성'[82]을 배우도록 교수·학습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체계를 반영하여 <속미인곡>이 수록되어 있는 관련 단원은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2] 중세 문학'[83]으로 설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속미인곡>의 교수·학습 목표는 차시별로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 제시하여 심화 목표까지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1차시와 2차시의 학습 목표를 나타낸 것이다.

82) 문화적 표상성은 그 시대가 추구하는 여성성과 남성 작자에 의해서 남성 작자와 수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부여된 여성의 상징적 특징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타자화된 여성상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김대행, 『고전문학과 여성 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 월인, 2003, 15면 참고.)

83)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2014.

<표-9> <속미인곡>의 학습 목표

학습 목표 / 수업 차시	기본	심화
1차시	<속미인곡>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시적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고려하여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차시	시적 화자를 통해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속미인곡>과 <정과정>의 비교를 통해 타자화된 여성 화자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교수자는 <속미인곡>의 시적 화자인 여성 화자의 양상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자는 학습자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정도, 흥미 등을 미리 파악하여, 교수·학습 환경에 따라 학습자의 동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학습 내용의 상세화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집하는 단계이다.[84]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속미인곡>과 <정과정>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상호텍스트란 하나의 대상에 대해 내용과 형식면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다르게 쓰인 두 개 이상의 글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관련성을 뜻한다.[85] <속미인곡>과 <정과정>은 창작 시기나 작자 계층과 같은 문학 외적인 면에서부터 차이를 보이지만 향유시기와 향유 계층 사이는 유사한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86] 이러한 유사점에 주목하여 학습자를 작품 속의 여성 화자와 공감하게 한 다음 차이점을 들어 <속미인곡>에 와서 심각하

84) 최지현 외, 앞의 책, 69면.
85)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고시 제14호, 2012. 50면.
86) 김진희, 「절대적 존재에 대한 사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40~43면.

게 소외된 여성 화자의 양상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나. 구체화 단계

교수·학습의 구체화 단계에서는 준비 단계의 활동을 바탕으로 적절한 교수·학습 모형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상세화한 교수·학습 내용을 가감하여 조정하며,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구상하고 절차화한다.[87]

이러한 과정을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개념 학습 모형을 복합하여 구성하도록 하겠다. <속미인곡>과 <정과정>은 '임'을 향한 연군가로 그 대상은 같다. 학습자에게 각각의 글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양상이 다름을 인지시키고, 학습자로 하여금 그 내용 차이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시적 화자를 고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를 토대로 학습자는 연군가로만 교육되고 있는 <속미인곡>과 <정과정> 교수·학습 과정에서 한 쪽으로 치우친 사고에서 벗어나 작품에 드러난 여성 화자와 관련하여 자신만의 관점을 가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표현 효과를 파악하도록 구체화할 것이다. 그리하여 작자의 창작 의도 뒤에 숨겨져 있어 파악되지 않았던 여성 화자의 양상을 학습자가 알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학습자의 삶과 연계하여 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한다.

다. 지도 및 평가 단계

교수·학습의 지도 및 평가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구조화한 내용들을 투입·실행하는 단계로써, 교수자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실제 수업이 진행된

87) 최지현 외, 앞의 책, 69~70면.

다.[88]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인 '반응의 형성→ 반응의 명료화 →반응의 심화'를 따르되 반응의 심화 단계에서는 개념 학습 모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1) 반응의 형성

지도 단계에서는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주위 환기, 주의 집중, 관심과 흥미 유발, 선수 학습 확인, 학습 목표 확인, 학습 계획 설명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89]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 제시하였다면,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생각하며 <속미인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학습 동기는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와 같은 이별의 상황을 학습자가 떠올리도록 질문을 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갑녀와 을녀의 역할을 나누어 텍스트를 읽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라고 할 수 있는 '반응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데 이것은 학생이 작품을 읽는 것으로 실현된다. 이때 교사로부터 호명된 학생이 직접 읽을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읽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서 내용을 읽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는 텍스트를 읽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화자의 상황을 상상하게 돕는다.

(2) 반응의 명료화

본 활동 단계에서는 특정 교수·학습 모형이나 방법의 차시별 적용 활동이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복합적 실행 활동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

88) 최지현 외, 앞의 책, 70면.
89) 최지현 외, 앞의 책, 70면.

질 수 있다.[90]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가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의 상황을 대처하는 태도를 질문하고, 작품이 창작된 배경과 작자의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여성 화자의 반응에 공감하도록 한다. 작품이 창작된 배경과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가 '작품 이해에 필요한 마음의 준비 내지 이론적 근거'[91]를 마련하도록 하고, 작품을 융통성 있게 감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을녀의 임을 향한 일방적인 태도를 통해 작품에 드러나는 여성 화자와 임의 관계가 단선적이라는 것을 학습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충신연주지사'의 표현 방법임을 인지시킨다.

이 때,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의 반응의 명료화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반응의 기록, 반응에 대한 질문, 반응에 대한 토의, 반응의 반성적 쓰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짝과 함께 <속미인곡>의 화자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도록 시간을 주고, 작품이 창작된 배경을 제시 한 후 여성 화자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 토론하게 할 수 있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 충신연주지사의 표현의 기제인 여성 화자를 학습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속미인곡>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에 대해 서술해보고 학습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한다.

(3) 반응의 심화

반응의 심화에서는 앞에서 진행되어 온 교수·학습 내용과 활동에 대한 종합 정리 평가 활동이 중심이 된다.[92] 그리고 평가의 결과는 교수·학습의 계획 단계, 구체화 단계, 지도 및 평가 단계에서 언제든지 반영된다. 이 단계에서는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 학습자의 반응을 심화

90) 최지현 외, 앞의 책, 70면.
91) 허왕욱, 『고전시가교육의 이해』, 보고사, 2004, 304면.
92) 최지현 외, 앞의 책, 71면.

시키도록 지도 한 후에, 학습 활동지를 통해 수업을 마무리 짓는 평가가 주를 이룰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속미인곡>과 <정과정>의 비교를 통해 여성 화자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자가 알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특정 작품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의 의미 구조를 밝히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작품과의 관계를 통해 문학사적 가치를 밝혀야 한다. 작품의 관계는 개별 작품끼리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장르의 종(種)과 류(類)의 관계일 수도 있다.[93]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학습자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여성 화자의 양상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시적 화자의 상황을 학습자 입장에서 재해석해 보도록 반응의 심화 절차에 따라서 수업을 계획하였다.

<표-10> '여성 화자' 교육을 통한 반응의 심화 절차[94]

수업 절차	학습자의 학습 내용
①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읽기	학습자가 작품을 읽으며 상황을 상상하게 돕는다.
②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파악하기	시적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각해 보게 한 후 처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③ 시적 화자의 반응에 공감하기	시적 화자의 태도 반응에 학습자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④ 시적 화자의 양상에 공감하기	'연군가', '충신연주지사'라 일컬어지는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여성 화자의 양상을 파악하도록 한다.

93) 허왕욱, 앞의 책, 314~315면.
94) 한창훈, 앞의 책, 29~35면.

⑤ 시적 화자의 상황 재해석하기	학습자가 파악한 여성 화자를 토대로 화자가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라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보게끔 한다.(내면화)

①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읽기

학습자 스스로 여성 화자와 같은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가정 하에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의 상황을 상상하며 글을 다시 읽도록 한다.

②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파악하기

이별의 상황에서 시적 화자의 어조·태도 등에서 드러나는 여성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러고 나서 짝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작품이 학습자의 개인적 감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작품 감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적 화자의 반응에 공감하기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여성 화자의 표면적 태도 속에 이면적인 작자의 '충신연주지사'의 뜻이 있음을 학습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시적 화자의 양상에 공감하기

학습자로 하여금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의 반응과 <정과정>의 여성 화자의 반응을 살피도록 하여 상이한 발견하게 한다. 그러한 상이점을 통해 한국 문학의 역사 속에서 점점 타자화 되어가는 여성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⑤ 시적 화자의 상황 재해석하기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이별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전시가에서 주체가 되지 못한 여성 화자의 양상을 학습자가 파악하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여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2. 여성 화자 교육을 통한 <속미인곡>의 수업의 실제

속미인곡은 국어교육에서 대부분 2차시로 배정되어 있다. 1차시에서는 <속미인곡>의 전반적인 형식, 표현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2차시에서는 여성 화자 양상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

가. 1차시 수업 지도안

학습자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상황 때 느끼는 슬픔을 간접적으로 언급 하여 동기를 유발하고, <속미인곡>의 시적 화자 역시 과거의 사람이지만 같은 상황임을 인지시킨다. 1차시에는 <속미인곡>의 내용과 형식의 특성에 주목하여 학습자를 가르치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속미인곡>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찾아보게 하고 여성 화자의 표현 방식과 충신연주지사의 흐름을 알도록 한다.

시작 활동에서는 본격적으로 <속미인곡>을 학습하기 전에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흥미로울 만한 질문을 한다. 가

령, 시적 화자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해 본적이 있는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학습자의 대답을 유도한다. 본 활동 단계에서는 학습자와 텍스트의 거래를 촉진시켜 반응을 형성하도록 한다. 학습자에게 갑녀 또는 을녀의 역할을 부여하여 작품을 읽게 한 후, <속미인곡>의 전체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작품이 창작된 배경과 작자에 관하여 논의하고 여성 화자로 설정한 이유를 고려해보도록 지도한다. 마무리 활동으로 학습 활동지를 활용하여 개념을 확인시킨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대단원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지도 대상	고등학교 2학년	차시	1/2
중단원	[2] 중세 문학		교수학습 형태	직접교수법 반응중심학습모형		
학습 목표	기본	<속미인곡>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심화	시적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파악하여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학습 자료	학생	문학 교과서				
	교사	지도서, 문학 교과서, 학습 활동지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시작 활동 (5분)	수업 시작	▷인사하기		• 인사하기		
	전시 학습 확인	▷전시 학습을 확인시킨다.		• 전시 학습을 확인한다.		
	학습 동기 유발	▷흥미로운 발문을 통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이별에 관한 경험에 대하여 말해보게 한다. - 가장 슬펐던 이별의 순간은 언제인가? - 이별 후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말해보자.		• 이별에 대해 생각한다.		
본 활동 (40분)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		
	교과서 학습	▷학생들에게 갑녀와 을녀의 역할을 부여하여 읽기를 시킨다.		• 갑녀와 을녀로 나누어 작품을 읽는다.		

		▷작품의 전체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 작품의 전체 구성에 대해 생각하며 듣는다.	교사가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제시 할지 조절하여 제시하도록 유의한다.
		▷작품이 창작된 배경과 작자에 대해 설명한다.	• 작품이 창작된 배경을 작품의 화자와 연결시켜 생각한다.	
		▷창작 된 배경과 작자가 여성 화자를 설정한 이유를 물으며 충신연주지사 속 지고지순한 여성상을 설명한다.	• 여성 화자로 설정한 이유를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한다. • 여성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고려하여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지고지순한 여성상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할 수 있다.	
마무리 활동 (5분)	형성 평가	▷작품에 드러난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에 대해 찾아보는 활동지를 제시한다.	• 작품에 드러난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찾는다.	학습 활동지

<표-11> 1차시 학습 활동지

[학습활동 1]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체로 되어 있다.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를 '갑녀'와 '을녀'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해 보자.[95]

'갑녀'의 질문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음
'을녀'의 답변	
'갑녀'의 위로	
'을녀'의 하소연	• 임의 안부가 염려되고 소식이 궁금함. • •
'갑녀'의 조언	

[학습활동 2] 작품을 창작할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의 창작 의도를 살펴보자.[96]

(1) '을녀'와 '임'이 비유하는 대상이 각각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를 말해 보자.

(2) 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 말해 보자.

[학습활동 3] 작품 <속미인곡>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말해 보자.

• 표면적 주제:

• 이면적 주제:

95)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014, 181면.
96)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014, 181면.

※ 1차시 학습 활동지 답안

[학습활동 1]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체로 되어 있다.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를 '갑녀'와 '을녀'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해 보자.

'갑녀'의 질문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음
'을녀'의 답변	**스스로 지은 죄가 있고 조물주의 탓임.**
'갑녀'의 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권함.**
'을녀'의 하소연	• 임의 안부가 염려되고 소식이 궁금함. • **꿈에서나마 임을 만남.** • **낙월이 되어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음.**
'갑녀'의 조언	**굿은비가 되기를 권함.**

[학습활동 2] 작품을 창작할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의 창작 의도를 살펴보자.

(1) '을녀'와 '임'이 비유하는 대상이 각각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를 말해 보자.

⇒ '을녀'는 작가 자신을 '임'은 임금을 의미함.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심을 임금이 알아주기를 바람.

(2) 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 말해 보자.

⇒ 작가는 신하가 된 입장에서 임금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렵고, 남성인 자신의 목소리로 감정 표현에 제약이 있었기에 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학습활동 3] 작품 <속미인곡>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말해 보자.

- 표면적 주제: **이별한 임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愛)**
- 이면적 주제: **임금에 대한 연모와 충절의 마음(忠)**

나. 2차시 수업 지도안

1차시 수업에서 학습한 충신연주지사의 흐름 속 <속미인곡>에 관해 학습자에게 질문한 후, 작품 속 여성 화자에게 동질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화자의 어조와 태도를 파악하여 학습자가 여성 화자의 상황과 정서에 공감을 하도록 한다. 2차시의 수업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반응의 심화 절차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읽기',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파악하기', '시적 화자의 반응에 공감하기', '시적 화자의 양상에 공감하기', '시적 화자의 상황 재해석하기'의 순서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먼저 시작 활동에서는 전시 학습 확인을 위해 <속미인곡>의 작자가 여성 화자를 설정한 의도를 학습자에게 질문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한다. 본 활동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에 공감하도록 하고, <정과정>과 비교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여성 화자의 어조와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게 한다. 1차시에서 학습한 여성 화자의 문학적 특성과 함께 여성 화자의 문화적 표상성을 깨닫고 여성 화자의 양상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마무리 활동으로 학습자가 여성 화자의 양상을 정리하도록 학습 활동지로 평가한다.

<table>
<tr><td>대단원</td><td colspan="2">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td><td>지도 대상</td><td>고등학교 2학년</td><td>차시</td><td>2/2</td></tr>
<tr><td rowspan="2">중단원</td><td colspan="2" rowspan="2">[2] 중세 문학</td><td rowspan="2">교수학습 형태</td><td colspan="3">직접교수법</td></tr>
<tr><td colspan="3">반응중심학습모형</td></tr>
<tr><td rowspan="2">학습 목표</td><td>기본</td><td colspan="5">시적 화자를 통해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td></tr>
<tr><td>심화</td><td colspan="5"><속미인곡>과 <정과정>의 비교를 통해 타자화된 여성 화자를 말 할 수 있다.</td></tr>
<tr><td rowspan="2">학습 자료</td><td>학생</td><td colspan="5">문학 교과서</td></tr>
<tr><td>교사</td><td colspan="5">지도서, 문학 교과서, 학습 활동지</td></tr>
<tr><td rowspan="2">단계</td><td rowspan="2">학습 요소</td><td colspan="4">교수·학습 활동</td><td rowspan="2">자료 및 유의점</td></tr>
<tr><td colspan="2">교사</td><td colspan="2">학생</td></tr>
<tr><td rowspan="3">시작 활동 (5분)</td><td>수업 시작</td><td colspan="2">▷인사하기</td><td colspan="2">• 인사하기</td><td></td></tr>
<tr><td>전시 학습 확인</td><td colspan="2">▷<속미인곡>의 작자가 여성 화자를 설정한 의도를 묻는다.</td><td colspan="2">• 전시 학습을 떠올리며 여성 화자 설정 의도를 이야기 한다.</td><td></td></tr>
<tr><td>학습 동기 유발</td><td colspan="2">▷시적 화자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한다.</td><td colspan="2">• 임과 이별한 시적 화자의 상황을 떠올리며 상상한다.</td><td>교과서</td></tr>
<tr><td rowspan="3">본 활동 (40분)</td><td>학습 목표 제시</td><td colspan="2">▷학습 목표를 제시한다.</td><td colspan="2">•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td><td></td></tr>
<tr><td rowspan="2">교과서 학습</td><td colspan="2">▷시적 화자의 반응을 묻는다.</td><td colspan="2">• 시적 화자의 감정에 공감한다.</td><td></td></tr>
<tr><td colspan="2">▷<정과정>의 여성 화자와 비교 제시 한다.
▷<속미인곡>과 <정과정>의 시적 화자의 특징을 설명한다.</td><td colspan="2">• <속미인곡>과 <정과정>의 여성 화자의 어조·태도 등을 비교한다.
• <속미인곡>과 <정과정>의 시적 화자를 통해 작품에 반영된</td><td></td></tr>
</table>

			시대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다.	
		▷<속미인곡>에서 드러난 여성 화자의 두 가지 양상을 설명한다.	• <정과정>의 화자인 여성은 여성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알고 말할 수 있다. • <정과정> 과의 비교를 통해 타자화된 여성 화자를 말 할 수 있다.	
		▷여성 화자의 상황을 재해석 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준다. (8분)	▪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여 여성 화자의 반응과 자신의 반응을 비교 한다.	
마무리 활동 (5분)	형성 평가	▷학습 활동지를 통해 타자화된 여성 화자의 양상을 정리하도록 한다.	• 학습 활동지를 풀며 여성 화자에 관해 공감을 할 수 있다.	학습 활동지

<표-12> 2차시 학습 활동지

1. 다음은 고려 의종 때의 문인 정서가 귀양지에서 임금을 생각하며 지은 고려 가요이다. '속미인곡'과 비교하여 읽고, 두 작품에서 '님'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 보자.[97]

가) 내 님믈 그리ᅀᆞ와 우니다니
산(山) 졉동새 난 비슷합니다
아니시며 거짓인 줄을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ᄉᆞ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ᄒᆞᄂᆞᆫᄃᆡ 지내고 싶어라 아으
어기시던 이가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무리들의 말입니다
사라지고 싶어라 아으
니미 나ᄅᆞᄅᆞᆯ ᄒᆞ마 니ᄌᆞᄉᆡ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

□잔월효성(殘月曉星) 새벽 달과 별
□도람 도로, 다시

2. <정과정>에서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3. '나' 가 <속미인곡>과 <정과정>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보자.

97)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2014, 169면.

※ 2차시 학습 활동지 답안

1. 다음은 고려 의종 때의 문인 정서가 귀양지에서 임금을 생각하며 지은 고려 가요이다. '속미인곡'과 비교하여 읽고, 두 작품에서 '님'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 보자.

가) 내 님믈 그리ㅿᆞ와 우니다니
산(山) 졉동새 난 비슷합니다
아니시며 거짓인 줄을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ᄉᆞ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ᄒᆞᄂᆞᆫᄃᆡ 지내고 싶어라 아으
어기시던 이가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무리들의 말입니다
사라지고 싶어라 아으
니미 나르ᄉᆞᄅᆞᄒᆞ마 니ᄌᆞ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

□잔월효성(殘月曉星) 새벽 달과 별
□도람 도로, 다시

⇒ 두 작품 모두 자신의 결백을 여성 화자를 통해 드러내는 방식으로 임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단, '정과정'은 임을 원망하고 있는데 반하여 속미인곡에는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지 않는다.

2. <정과정>에서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ᄅᆞ시리이다', '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와 같은 행은 <속미인곡>에 등장하는 여성 화자에 비해 여성적 성격이 적고 남성 화자로 여겨도 거리낄 것이 없다. 작자인 정서가 직접 청자인 임금에게 말하고 있다는 추정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3. '나' 가 <속미인곡>과 <정과정>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보자.

V. 결론

문학이 집단적·주술적 성격에서 개인적·서정적 성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성 화자의 역할은 가부장적인 사대부 남성 작자의 개인 정서를 대변하는 대리자적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여성 화자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고전시가 교육의 변화 양상을 시적 화자를 통해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국어 국문학계의 여성 화자에 관한 연구 성과는 '타자화된 여성상 규명'이라는 단계까지 이루어졌는데, 국어교육 현장에서는 그것을 학습자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에 대한 교육이 '충신연주지사의 표현 기제'로만 학습자에게 교육되고 있는 편협성을 지적하고 <정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해 보았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방법 및 대상을 선정하였다.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문학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연군가, 유배가사, 충신연주지사와 관련 깊은 <속미인곡>교육이 '임금을 향한 신하의 충절(忠節)'이라는 측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교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수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특징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여성 화자 교육이 필수인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학습자에게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그저 표현의 기제로만 교육되고 있을 뿐 시가 교육상의 중요 인자로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전시가 연구에서 여성 화자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축적돼 온 것에 비하면, 그 흐름 속의 하나인 <속미인곡>의 타자화된 여성 화자에 대한 교육

은 충신연주지사, 연군가, 유배가사로 일컬어지는 <속미인곡>에 복수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데도 여성 화자 양상에 대한 교육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속미인곡>을 선택하게 되었다.

Ⅱ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속미인곡> 여성 화자 교육을 살펴보기 위해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학 교과서의 <속미인곡> 선호 양상이 높다는 사실과 더불어 <속미인곡>이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와 '문학과 삶'의 내용 영역에서 교육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속미인곡>이 수록된 학습 활동은 대화체와 여성 화자를 설정한 작자의 창작 의도를 묻는 부분에 치우쳐 있어서 여성 화자 양상이 학습자에게 비판적으로 교육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목소리 양상을 연군가의 원류라고 <속미인곡>과 함께 언급되어 있는 <정과정>과 유배가사의 원류라고 일컬어지는 <만분가>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과정>과 <만분가>의 여성 화자는 여성 화자라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과정>과 <만분가>, <사미인곡>의 여성 화자는 남성 작자가 직접 발화했다고 보아도 무방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여성 화자의 양상은 <속미인곡>에서 남성 작자에 의해서 철저히 타자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장에서는 고전시가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교수·학습 방안을 구상하였다. 학습자에게 시적 화자의 상황에 대한 공감을 동기유발로 시작하여 여성 화자의 어조나 태도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구상해보았다. 그리고 <정과정>과의 상호텍스트 수업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속미인곡>의 타자화된 여성 화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수업 지도안에 반영해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충신연주지사에 한정하여 '여성 화자'를 표현 기제로만 보

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발단으로 학습자에게 좀 더 객관화된 여성 화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동안 축척되어온 고전시가의 여성 화자 연구를 기반으로 제안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흡하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을 기초로 여성 화자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하였다. 주석 위주의 고전시가 교육에서 소위 학습된 무력감을 느끼는 학습자에게 <속미인곡>의 여성 화자 교육을 통해 작품과의 시간적 거리에서 발생하는 생소함 대신에 보편적인 감정에 대한 공감으로 시가를 보다 친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참고문헌

1. 단행본

구인환 외,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진원, 2009.

권대훈,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6.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2014.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지도서, 지학사, 2014.

김대행, 『고전문학과 여성 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 월인, 2003.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2014.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지도서, 천재교육, 2014.

김일병, 『국어과 교수·학습의 실제』, 박이정, 2005.

김준오, 『가면의 해석학』, 이우, 1987.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두산동아, 2014.

김쾌덕, 『고려 속가의 연구』, 새미, 2006.

박종호 외, 『고등학교 문학』, 창비, 2014.

박종호 외, 『고등학교 문학』지도서, 창비, 2014.

변광배·보부아르, 『e시대의 절대사상 제2의 성 여성학 백과사전』, 살림, 2007.

서영숙, 『조선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 역락, 2003.

성낙희·조연숙, 『고전시가의 이해』, 새미, 2006.

성현·염정권, 『악학궤범』제5권, 한국문화사, 1996.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과서, 2014.

윤덕진, 『조선조 가사의 연원과 맥락』, 보고사, 2008.
윤여탁 외, 『고등학교 문학』, 미래엔, 2014.
이명기 외,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4.
이숭원 외, 『고등학교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4.
정인숙, 『가사문학과 시적 화자』, 보고사, 2010.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과서, 2014.
조정래 외, 『고등학교 문학』, 해냄에듀, 2014.
최강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③ 가사 Ⅰ』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최상은, 『가사문학의 이념과 정서』, 보고사, 2006년.
최상은, 『조선 사대부가사의 미의식과 문학성』, 보고사, 2004.
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2009.
최혜진, 『한국고전시가의 이념과 지향』, 월인, 200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고전문학과 정서 교육』, 월인, 2014.
한창훈,『고전문학과 교육의 다각적 해석』, 역락, 2009.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014.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지도서, 비상교육, 2014.
허왕욱, 『고전시가교육의 이해』, 보고사, 2004.

2. 학술지 논문

고정희, 「고전시가 여성 화자 연구의 쟁점과 전망」, 『여성문화연구』 제15집, 한국여성문학회, 2006. 6.
김선기, 「<속미인곡>의 창작기법 고찰」, 『고시가연구』 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2.
김진희, 「절대적 존재에 대한 사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박상영, 「고전 시가 속 여성 형상의 제시 양상과 그 시가사적 함의」, 『韓民族語文學 』제6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8.
박상영, 「송강가사의 담론 특성에 관한 일고찰」, 『語文學』제125집, 한국어문학회, 2014.
박상영, 「고전 시가 속 여성 형상의 제시 양상과 그 시가사적 함의」, 『韓民族語文學 』제6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8.
박영주, 「송강문학 연구의 흐름과 방향」, 『고시가연구』제3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4. 2.
박춘우, 「<속미인곡>연구」, 『우리말 글』제14집, 대구어문학회, 1996. 6.
박태진, 「<속미인곡>의 서술 방법에 나타난 상담의 특징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제2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구, 청관고전문학회), 2011. 2.
박혜숙, 「고려속요와 여성 화자」, 『고전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서영숙, 「속미인곡의 서술방식과 의미」, 『한어문교육』 제7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9. 12.
서혁, 「국어과 수업 설계와 교수학습 모형 적용의 원리」, 『국어교육학연구』 제26집, 국어교육학회, 2006.
안대희, 「18세기 여성 화자시 창작의 활성화와 그 문학사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6.
이수곤, 「<정읍사>의 여성 화자 태도와 그 의미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이유진, 「<사미인곡>·<속미인곡>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문학치료연구』제7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8.

이혜순, 「15·16세기 한국 여성 화자 시가의 의의」, 『韓國文化』 제19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6.

임주탁, 「<속미인곡>의 화자 분석과 작품 해석」, 『한국문학논총』 제60집, 한국문학회, 2012. 4.

조세형, 「송강가사에 나타난 여성 화자와 송강의 세계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6.

정경주, 「鄭敍의 生涯와 忠臣戀主之詞로서의 <鄭瓜亭>」, 『동양한문학연구』 제8집, 동양한문학회(구 부산한문학회), 1994.

최규수, 「송강 시가에서 자의식의 비유적 형상화와 여성 화자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12.

최홍원, 「고전시가 관계 치환의 교육내용 연구- 남성 작자의 여성 화자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28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4.

3. 학위 논문

경규진, 「반응중심 문학교육의 방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권정은, 「여성 화자 가사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

류형엽, 「학습자 반응 중심의 문학 복합 교수·학습 모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정인숙, 「가사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목소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8.

4. 기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고시 제14호, 20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고려사> 제71권 지제 25 악2 , 속악.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